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마르크 샤갈의 회화표현 구성 요소를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 제작

-색채와 주제 중심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이 소 현

마크 샷의 회화표현 구성 요소를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 제작

-색채와 주제 중심으로-

문 윤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이 소 현

인 준 서

이소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사회는 다변화 · 다양성의 시대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가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 형식이나 전통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미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를 메이크업에도 반영하여 창의성을 추구하는 아트 메이크업 장르를 형성하였다.

아트 메이크업은 창의적인 감성을 통해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의 한 부위에 다양한 방식의 창작활동을 통해 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트메이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를 가져 오고 있으며, 특히 미술양식이나 건축, 패션 등의 조형적인 요소를 응용하여 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미술사 중 격변의 20세기를 살아 온 마르크 샤갈은 피카소와 더불어 영향력 있는 화가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많은 전시회 및 예술 작품에 그의 작품은 무한한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다. 샤갈의 작품은 20세기 다양한 화풍 중 특정 화풍에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었는데, '색채 마술사'라고도 불리는 그의 작품은 다양한 색채로 그 만의 해석을 가지며, 현실 속 보편적인 주제를 환상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그의 명성을 현대에까지 떨치고 있다. 그의 다양한 회화표현 구성요소의 결합을 통해 그 만의 정서로 창조된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의 경의의 대상이 되고 공감할 수 있음을 상기 해 볼 때, 분명 그의 작품 세계가 예술의 본질에 대해 시사 하는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앞선 이들을 서로 접목하여 조형예술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트 메이크업의 다양한 창작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자 색채 미술사라 불리는 마르크 샤갈의 대표적 회화표현 구성요소인 색채와 주제를 아트 메이크업에 접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한 예술적 차원의 개성 있고 창조적인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단행본과 선행 논문 고찰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였고,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의 작품 및 회화 표현의 구성요소 중 주제와 색채를 분석하여, 예술적 차원의 창작 표현 방법을 접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 IV는 샤갈 회화표현의 구성요소 중 색채 부분을 응용한 작품으로, 그의 작품의 대표적 색채인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의 색채로 각 1작품씩 4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는 샤갈의 ‘서커스에서’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빨강의 컬러를 무희에게 접목하여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도록 재해석 하였고, 작품 II는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샤갈의 작품을 노랑의 색채로 요정과 당나귀의 사랑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II은 ‘3시 반 또는 시인’이란 작품을 초록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원색의 컬러들을 활용하였으며, 큐비즘적 표현을 위해 사진을 찢어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하였고, 작품 IV는 ‘부채를 든 신부’의 느낌을 파랑의 컬러로 우울하며 음침한 분위기로 재해석 하였다.

그리고 작품 V - VIII은 샤갈 작품의 대표적 주제인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 ‘꿈과 그리움’, ‘사랑과 낭만’, ‘환희와 슬픔’ 4가지 주제를 활용하여 각 1작품씩 4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V는 샤갈이 그의 고향 러시아를 떠나 파리로 갔을 때 제작한 ‘창가에서 본 파리’라는 작품으로 파리를 동경하는 모습과 그의 고향 러시아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주제로 두 얼굴을 제작하여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VI은 ‘두 얼굴의 신부’로 신부의 두 얼굴을 통해, 신부가 가진 결혼 전의 아픔과 결혼으로 인한 희망적 삶을 주제로 제작하였다. 작품 VII은 샤갈의 작품에 가장 영향을 준 그의 연인 벨라를 주제로 한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이다. 원작의 검정과 흰 컬러를 주조색으로 우아하고 카리스마적인 현대판 벨라로 재탄생시켰다. 마지막으로 작품 VIII에서는 ‘제한 없는 시간’을 모티브로 하여, 세계 2차 대전에서의 슬픔을 가진 초현실적인 물상을 만들어 전쟁 속에 평화를 간절히 기원하는 전사의 이미지로 재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제작에 있어 마르크 샤갈 작품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미술 작품과 아트 메이크업의 결합으로, 대중들이 미술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트 메이크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예술적 소재와 디자인으로 독창적인 작품으로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추후 샤갈의 작품 뿐 아니라 다양한 현대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응용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트 메이크업의 제작이 끊임없이 시도되어 예술적 ·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마르크 샤갈 회화 형성 배경	5
1) 생애	5
2) 20세기 미술사의 흐름	9
(1) 야수주의	14
(2) 입체주의	16
(3) 초현실주의	18
2. 마르크 샤갈 회화 표현의 구성요소	22
1) 구도와 공간	22
2) 색채	26
3) 주제	32
(1) 향수	33
(2) 사랑과 낭만	36
(3) 종교	39
III. 작품제작	41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41

2. 작품제작 43

IV. 결론 79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1> 작품 디자인 계획	42
<표 2>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44
<표 3> 작품 II 디자인 이미지	49
<표 4> 작품 III 디자인 이미지	53
<표 5> 작품 IV 디자인 이미지	58
<표 6> 작품 V 디자인 이미지	63
<표 7> 작품 VI 디자인 이미지	68
<표 8> 작품 VII 디자인 이미지	72
<표 9> 작품 VIII 디자인 이미지	76

그림 목 차

<그림 1> 키르히너 “거리의 여인들”	13
<그림 2> 놀데 “양초와 춤추는 여인들”	13
<그림 3> 칸딘스키 “푸른 하늘”	13
<그림 4> 데 키리코 “사랑의 노래”	13
<그림 5> 클레 “노란 새들이 있는 풍경”	14
<그림 6> 마티스 “붉은 화실”	16
<그림 7> 드랭 “런던교”	16
<그림 8> 피카소 “꿈”	18
<그림 9> 들로네 “생 세브랭 교회 No.1”	18
<그림 10> 달리 “기억의 영속”	21
<그림 11> 마그리트 “레슬러의 무덤”	21
<그림 12> 에른스트 “도시 전경”	21
<그림 13> 샤갈 “3시 반 또는 시인”	25
<그림 14> 샤갈 “일곱 손가락의 자화상”	25
<그림 15> 샤갈 “나와 마을”	25
<그림 16> 샤갈 “누워있는 시인”	25
<그림 17> 샤갈 “제한 없는 시간”	26
<그림 18> 샤갈 “창문”	26
<그림 19> 샤갈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	30
<그림 20> 샤갈 “탄생”	30
<그림 21> 샤갈 “술잔을 든 이중 초상”	30
<그림 22> 샤갈 “아뜰리에”	30

<그림 23> 샤갈 “산책”	31
<그림 24> 샤갈 “창가의 이다”	31
<그림 25> 샤갈 “여곡마사”	31
<그림 26> 샤갈 “초록 말”	31
<그림 27> 샤갈 “비테프스크 위의 누드”	32
<그림 28> 샤갈 “초록 눈의 집”	35
<그림 29> 샤갈 “창가에서 본 파리”	35
<그림 30> 샤갈 “곡예사”	35
<그림 31> 샤갈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35
<그림 32> 샤갈 “도시 위에서”	38
<그림 33> 샤갈 “에펠탑의 신랑신부”	38
<그림 34> 샤갈 “생일”	38
<그림 35> 샤갈 “백합 아래의 연인들”	38
<그림 36> 샤갈 “인간의 창조”	40
<그림 37> 샤갈 “흰 십자가”	40
<그림 38> 샤갈 “순교자”	40
<그림 39> 작품 I - 메이크업	45
<그림 40> 작품 I - “Carmen”	46
<그림 41> 작품 II - 메이크업	50
<그림 42> 작품 II - “Fantastic Lover”	51
<그림 43> 작품 III - 메이크업	54
<그림 44> 작품 III - “Palette”	55
<그림 45> 작품 IV - 메이크업	59
<그림 46> 작품 IV - “Gloomy Bride”	60
<그림 47> 작품 V - 메이크업 1	64

<그림 48> 작품 V - 메이크업 2	64
<그림 49> 작품 V - “In Paris”	65
<그림 50> 작품 VI - 메이크업	69
<그림 51> 작품 VI - “The Bride’s Future”	70
<그림 52> 작품 VII - 메이크업	73
<그림 53> 작품 VII - “Bella”	74
<그림 54> 작품 VIII - 메이크업	77
<그림 55> 작품 VIII - “Warrior”	78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현대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는 물론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까지 급속히 변화하는 대혼란의 시대이다. 또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 되고 있다¹⁾. 이는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²⁾의 영향으로 획일화 · 규격화에서 벗어나 다양성 · 차별성 · 개성이 인정되고 존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신속한 변화를 이루었는데, 이는 고전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게 변모하였고, 또한 자아의 확립 · 개성의 주장 · 자유의 존중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³⁾.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21세기에 들어 예술전반에 걸쳐 새로운 질서와 미를 창조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개인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메이크업에도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미술, 건축, 패션 등에서 그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 이 중 모든 예술 분야에 가장 근본적인 영감을 제공한다 할 수 있는 미술 분야의 작가들의 다양한 회화 표현이 아트 메이크업에 무한한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다⁴⁾. 많은 아티스트들이 과거의 특징적인 미술사조와 결합, 작가

1) 윤수정(2002), “패션 트렌드의 다중화 · 복합화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2)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한 시대의 이념으로, 2차 세계대전 및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민권운동과 구조주의 이후에 일어난 해체현상의 영향을 받았다. 탈 중심적 다원적 사고, 탈 이성적 사고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다.

3) 김민지(1995),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4) 정은지(2011), “구스타프 클림트 회화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와 이미지를 창출하며 나아가 캐릭터와 스토리를 제시하고⁵⁾ 작가 개인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미술 작가 중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는 마르크 샤갈은 러시아에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 격동의 20세기의 역경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깊은 시정을 작품에 담아 미술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이룩하였다⁶⁾. 또한 유럽 화단의 가장 진보적인 흐름을 누비며 일관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미술 세계를 발전⁷⁾시킨 화가로,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현실을 초월한 세계, 인간의 무의식 세계와 환상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취하여 솔직하고 대담하게 화면을 구성하며 현대인들에게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⁸⁾.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메이크업 작품 제작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수민(2012)⁹⁾의 ‘마르크 샤갈의 회화적 모티브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디자인 연구’는 마르크 샤갈의 회화적 요소를 바디페인팅에 접목하여 바디페인팅의 작품 세계를 넓혀주었고, 이지영(2013)¹⁰⁾의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연구’를 살펴보면 샤갈의 작품 중 ‘나와 마을’이란 작품을 콜라주 기법으로 아트 메이크업으로 재해석 하였다. 그리고 박지은(2015)¹¹⁾의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마스크 디자인 연구’에서는 샤갈의 작품에 표현된 조형적 특성과 다

석사학위논문, p.1

5) 이현주 외 3명(2005), *The Make-up*, 서울: 예림, p.11

6) 정숙자(1991), “20세기 미술의 동향과 마르크 샤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논문집*, 12, p.172

7) 네이버, 마르크 샤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0683&mobile&cid=40942&categoryId=34392>, 2015.4.20.

8) 정숙자(1991), *전계서*, p.174

9) 김수민(2012), “마르크 샤갈의 회화적 모티브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디자인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지영(2013),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20세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박지은(2015),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마스크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한 색채를 응용한 마스크 디자인을 하였다. 이렇듯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이론적 고찰을 통한 작품 분석 후, 메이크업으로 작품 제시를 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작품에서는 메이크업에서만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뿐, 배경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메이크업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외적인 요소도 균형을 이룰 때 그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트 메이크업의 다양한 창작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자 색채 마술사라 불리는 마르크 샤갈의 대표적 회화표현 구성요소인 색채와 주제를 아트 메이크업에 접목하여 예술적 차원의 개성 있고 창조적인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적 맥락에서 아트메이크업의 디자인 영역의 확대 및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써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단행본과 선행 논문 고찰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마르크 샤갈의 회화 작품을 분석하여, 예술적 차원의 창작 표현 방법을 접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 8개를 제작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20세기 미술사의 흐름을 알아본다. 이는 다양한 시대적 회화 조류를 경험한 샤갈만의 독특한 작품세계 창조 배경을 알기 위함이다.

둘째, 마르크 샤갈 작품의 특징을 연구하고, 회화표현의 구성요소인 구도와 공간, 색채, 주제를 분석한다.

셋째, 마르크 샤갈 작품에 나타난 회화표현의 구성요소 중 색채와 주제를 활용하여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마르크 샤갈 회화 형성 배경

1) 생애

마르크 샤갈은 1887년 7월 7일 러시아의 비테프스크(Vitebsk)에서 유대인의 아홉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이 도시는 러시아 서부 국경의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300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마을이었다. 샤갈은 유대교와 러시아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한 인물인데, 후일 그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소, 닭 등의 가축들의 형상은 그의 어린 시절 풍경으로, 작품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 한다¹²⁾. 또한, 그의 예술에 표상이 되는 종교적 세계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 의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으며, 그는 유대인 학교에서 그림에서의 재능을 인정받게 된다¹³⁾. 샤갈의 아버지는 거칠면서 말이 없는 성격으로 청어 도매상에서 일을 하였고, 어머니는 소규모 잡화상을 운영하며 최선을 다해 가족을 보살폈다. 그의 어머니는 샤갈의 화가로서의 소질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머니께 감사해했으며, 이후 가난함을 딛고 그림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¹⁴⁾.

8세의 어린 나이에 화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그 지방의 화가인 예후다 펜(Yehuda Pen, 1854~1937)의 화실에서 그림 지도를 받는 것으로 현대 미술을 접하기 시작했고¹⁵⁾, 1909년 즈반체바 학교에 입학하여 레온 박

12) 최예윤(2006), 전계서, p.7

13) 정숙자(1991), 전계서, p.166

14) Ingo F Walther and Rainer Metzger(2000), Marc Chagall, Köln: TASCHEN GmbH, p.7

15) 오윤주(2004), 전계서, p.4

스트(Léon Bakst, 1866~1924)에게 지도를 받았는데, 그는 샤갈에게 진정한 유럽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러시아를 떠나 파리로 가라고 권유했다. 그리하여 1910년 8월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그는 프랑스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의 시작이 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미래파 등의 새로운 미술사조가 흘러들어와 러시아 미술에서의 르네상스가 준비되고 있었다¹⁶).

샤갈에게 파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미지로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 이곳은 세계각지의 화가들이 몰려들어 다양한 파벌을 이루고 있었으며, 새로운 미술운동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1912년 샤갈은, 몽파르나스 '라 튀슈(La Ruche)'라는 건물로 화실을 옮겼는데, 이곳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가난한 예술가들이 우글거리는, 벌집이라는 뜻을 가진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에는 새로운 양식을 실험 하는 야수파 · 입체파 화가들과 입체파의 이론적 지주인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 1880~1918)와 같은 시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라 튀슈는 샤갈에게 의미 있는 만남을 성사시켰는데, 그것은 시인이자 비평가인 아폴리네르, 시인 블레즈 상드라르(Blaise Cendrars, 1887~1961), 오르피즘(orphism)의 창시자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 1885~1941)와의 교류이다¹⁷. 샤갈은 이 시기에 야수주의, 입체주의, 오르피즘 등의 새로운 작업방식에 영향을 받았으며,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요소가 많은 독창적 예술세계를 표현했다¹⁸. 1914년 샤갈은 아폴리네르의 도움으로 베를린의 슈트룸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 비테프스크로 돌아갔다.

그해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였으며 계속하여 러시아 혁명으로 그는 고향

16) 정숙자(1991), 전계서, p.167

17) 조순자(2012), "마르크 샤갈의 작품에 나타난 빛의 도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18) 네이버, 마르크 샤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0683&mobile&cid=40942&categoryId=34392>, 2015.5.19.

에 발이 묶여 거의 8년간 머무르게 되었다. 1915년 샤갈은 그의 나이 28세에 고향 비테프스크에서 보석 세공사의 딸 벨라 로젠펠트(Bella Rosenfeld, 1895~1944)와 결혼 했다. 그녀와의 결혼은 사랑과 기쁨이라는 낭만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 주고 열정적이고 충만한 작품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자극제였다. “벨라는 항상 이전부터 나의 작품 위를 맴돌면서 내가 나아 갈 길을 인도하였다”¹⁹⁾라고 샤갈은 말했다. 이 영향으로 그의 그림 속에는 급속히 약혼자들과 신랑 신부, 그리고 연인들의 이미지가 표출되기 시작했으며 감각적이면서 초월적인 작품이 등장하여 그의 예술을 더욱 감미롭게 해주었다²⁰⁾.

1917년 샤갈이 고향에 있는 동안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모국인 러시아에 머물면서 혁명 정부에 참가했으며 비테프스크의 미술학교의 총장에 취임했다. 샤갈은 새로운 교육을 펼치면서 비테프스크를 꿈의 도시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절대주의자들과의 갈등으로 이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실망한 샤갈은 모스크바로 떠났다. 샤갈은 모스크바에서 무대 미술에 관심을 갖고 단막극들의 무대 장치와 의상을 구상했다. 그러나 당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1922년 러시아를 영구히 떠나기로 결심 한 그는 베를린에서 힘든 1년을 보내고 다시 파리에 정착하였다²¹⁾.

1923년 파리로 돌아온 샤갈은 1차 세계 대전의 비극적 체험에 서구인들의 철저한 정신 분석의 움직임과 초현실주의의 대두 속에서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고집하며 작업에 열중했다²²⁾. 그의 그림은 이전의 섬세한 윤곽선과 면의 중첩으로 보이던 동시적 시각의 표현의 자취를 감추고 유연하면서도 육감적인 선과 유동적인 색감의 시적인

19) Marc Chagall(1931), Ma Vie, Paris: Librairie Stock, p.42

20) 김자영(2003), “C. G. Jung의 상징이론 -샤갈 작품 속의 자기(Self) 상징적 이미지와 연관하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8

21) 김정선(2012), “마르크 샤갈의 회화세계에 대한 연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22) 최예윤(2006), 전개서, p.9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²³⁾. 조국을 떠난 망명지에서의 생활이기는 하였으나 벨라와의 행복한 가정생활은 그의 예술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으며, 아름다운 작품들을 계속해서 제작하게 해 주었다. 1926년 뉴욕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그의 국제적 명성은 더욱 높아져갔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샤갈과 벨라, 딸 이다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초청으로 전쟁을 피해 프랑스를 떠나 1941년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1944년 9월 샤갈은 그의 오랜 예술의 원천이며 생의 감동과 즐거움을 안겨주고 그의 영원한 여인상이었던 아내 벨라를 여의는 생애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죽음으로 그는 한동안 붓을 들지 못했다. 망명생활을 거듭하고, 무수한 유대인 동포가 학살당하고, 독일과 러시아에서는 그의 작품들이 추방, 소각 당하며 드디어는 타향에서 아내를 잃은 샤갈은 “모든 것이 내 안에서 깨어나고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틀이 되기 위하여 부재, 결핍, 전쟁, 고통 등이 있어야 했다”라고 회고 했다²⁴⁾. 그 후, 샤갈은 열정적으로 작품들을 쏟아냈는데, 그의 그림에는 비장한 아름다운 슬픔이 묻어있었다.

망명생활을 마치고 1947년 파리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의욕으로 작품 제작에 임하였는데, 1952년 프랑스 남부지방인 방스에서 발렌티나 브로드스키(Valentina Brodsky, 1905~1993)와 재혼하면서 그의 작품은 다시 활기를 찾으며 서커스, 춤, 닭, 물고기, 새 등의 이미지와 다채로운 구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판화 · 유화 · 벽화(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의 벽화, 파리 오페라극장의 천정화 등) · 스테인드글라스 · 도자기 · 조각 제작을 비롯하여 무대 장식 분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하였다²⁵⁾.

1977년 샤갈은 프랑스 정부에서 주는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받았

23) 정숙자(1991), 전계서, p.169

24) Marc Chagall(1979), Marc Chagall de Draeger, Paris: Editions Draeger, p.123

25) 배남이(2002), “감상을 통한 상상화 발달지도 연구 -샤갈작품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고, 현존하는 화가로 루브르박물관에 작품이 걸리는 영광을 얻었다.

1985년 3월 28일, 저녁, 그는 작업실에서 자화상을 그리다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쓰러져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샤갈은 현대 미술의 한 가운데에서 많은 미술 사조를 스치고 지나갔다. 비록, 어느 한 유파에 고착되진 않았지만 그의 작품 속에는 대담한 색채, 입체주의적 화풍, 초현실적인 요소를 담은 화면 구성이 녹아 있다. 이는 그의 작품 속에 20세기 미술 사조를 기저에 담고 있음을 뜻하며, 이를 토대로 샤갈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 사랑과 낭만, 예술적 · 창조적 상상력의 힘에 대한 감동적인 믿음을 유대인 특유의 환상과 꿈의 표현을 통해 새롭게 나타냈다²⁶⁾.

2) 20세기 미술사의 흐름

샤갈의 작품은 특정 회화운동의 정통성을 따르진 않지만 그의 작품을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근본이 되는 회화적 배경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⁷⁾.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한 변화는 20세기 과학기술 및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더욱 세분화 · 다양화되었고 사회는 유래 없이 복잡해졌다²⁸⁾. 또한, 전통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통해 전통회화의 경직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감정에 의존하는 새로운 창작형태로 시작된 모더니즘 철학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표현의 자유로 혁신적이

26) 최예윤(2006), 전개서, p.10

27) 오윤주(2004), “샤갈의 회화세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구성요소적 특징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28) 이주희(2013), “로웬펠드의 자아동일화 개념과 미술사조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 연구 -독일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고 광범위하게 많은 사조들이 탄생되었다²⁹⁾.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 20세기 회화운동의 경향은 생활 예술(Art Vivant)의 모든 분야 속에 대부분 보편화 되었으며³⁰⁾, 이 순수 형태의 추구는 야수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 추상주의, 초현실주의 등에 이르는 다양한 양상의 사조들로 전개 되었고, 이 시대를 일컬어 앙드레 살몽(André Salmon, 1881~1969)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랍고 엄청난 ‘혁명적’ 단계의 하나라고 하였다³¹⁾.

20세기 미술은 수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유파들을 탄생시켰는데, 인상주의에 반대하여 자연주의적 묘사를 벗어나 색채 자체의 주관적 표현을 강조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³²⁾ 야수주의와 대상의 존재성을 기본적인 형태와 양에 의해 파악하며 형태를 섬세한 면 분할로 표현하는 입체주의로 각각 해방되었고, 이는 자연히 추상에의 길로 치달아 이 전보다 더욱 실험정신이 강조되었다³³⁾.

20세기 미술사의 커다란 흐름을 쟈슨(H. W. Janson, 1913~1982)은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자아와 정신이 담긴 주관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추구³⁴⁾에 중점을 둔 표현미술(Expression Art)과 미술 작품의 표현이 구체적 대상 없이 주관적 순수 구성표시를 강조한 추상미술(Abstraction Art) 그리고 상상력, 무의식의 해방, 합리성으로 꿈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순수, 환상 등을 탐구하는 환상미술(Fantasy Art)³⁵⁾이 그것이다.

29) 하중현(2005), 마티스와 불멸의 색채화가들, 서울: 시립미술관, p.19

30) 강희명(2004), “20세기 전반기 추상회화를 모티브로 한 니트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31) Reinhold Heller ed.(1991), Vom Expressionismus zum Widerstand: Kunst in Deutschland 1909~1936, München: Prestel-Verlag, p.16

32) 최선미(2011),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네일아트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20세기 미술사 표현을 중심으로)”,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3

33) 오윤주(2004), 전개서, p.8

34) 김애경(2009), “칼 융의 분석심리학으로 본 마르크 샤갈의 작품 연구”, 한세대학교 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15

35) 이슬(2010), “고등학생의 표현력 향상을 위한 감상학습법 연구 -마르크 샤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표현미술주의 화가들은 인간의 공통적인 사회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예술가 자신 및 세계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서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태도를 중요시 했다³⁶⁾. 화가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형태의 과장 및 왜곡이 두드러지며, 색채 표현 또한 강렬하다. 밝고 강한 색을 중점으로³⁷⁾ 급진적인 실험정신을 회화에 담은 프랑스의 야수주의(Fauvisme: 마티스, 루오)³⁸⁾, 개인의 내적인 묘사나 주관적인 표현의 중점³⁹⁾을 위해 어둡고 짙은 색을 사용하는 독일의 다리파(Die Brücke: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 1880~1938) <그림 1>, 놀데(Emil Nolde, 1867~1956) <그림 2>) 등은 표현미술주의에 속한다.

추상미술주의 작가들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지키면서 기하학적인 것에서부터 서정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표현 하였다. 또한 미술작품의 캔버스 내에서 공간, 형태, 색채의 구성을 중요시하였는데⁴⁰⁾, 폴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의 회화이론(모든 형태를 원추, 구, 원뿔 등 단순 형태로 나타내며 다양한 색채 조화를 통해 변화를 추구⁴¹⁾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입체주의는 화가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와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 등에 의해 토대가 이루어졌고, 추상미술주의를 주창한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 <그림 3>는 순수한 색과 추상적인 형상들로 작품을 창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상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많은 예술사조 중 가장 환상의 의미에 일치하는 예술사조는 초현실주의라 할 수 있는데⁴²⁾, 초현실주의는 주

36) 정숙자(1991), 전계서 p.162

37) 최예운(2006),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작품에 나타난 상상력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38) 오윤주(2004), 전계서, p.9

39) 이주희(2013), 전계서, p.14

40) 이슬(2010), 전계서, p.16

41) 강희명(2004), 전계서, p.13

42) 황성혜(2003), “환상 표현의 시각화 전통설화를 통한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로 무의식의 해방, 상상력 그리고 합리성으로 화가의 자유를 목표로 하여, 꿈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환상, 순수, 환각과 괴기스러운 작품을 만들어 냈다⁴³⁾.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자유 연상법과 꿈의 분석에 뿌리를 두고 무의식의 이미지를 자극하여 꿈, 무의식의 세계, 신비스러운 환상들을 회화에 담았다⁴⁴⁾. 또, 20세기에 들면서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1888~1978) <그림 4>, 샤갈, 클레(Paul Klee, 1879~1940) <그림 5>등의 회화에서 내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고 몽환적, 동화적, 서정성의 표출로 확대되어 환상미술의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⁴⁵⁾. 환상미술주의 화가들의 경우, 인간의 상상력의 세계 특히 상상력의 자발적인 작용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고 개인적인 사람의 심리의 미묘함과 비합리적인 특질을 연구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⁴⁶⁾.

샤갈은 특정 회화운동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들과 같은 시대에 활동하며 색채 표현에 중점을 두고 동적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현실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환상의 세계를 그 자신만의 자유로운 정서와 감각으로 표현하였다⁴⁷⁾. 또한 그의 작품에선 대담한 색을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야수주의, 대상을 분석하여 재구성하는 입체주의,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초현실주의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43) 이슬(2010), 전계서, p.16

44) 최예윤(2006), 전계서,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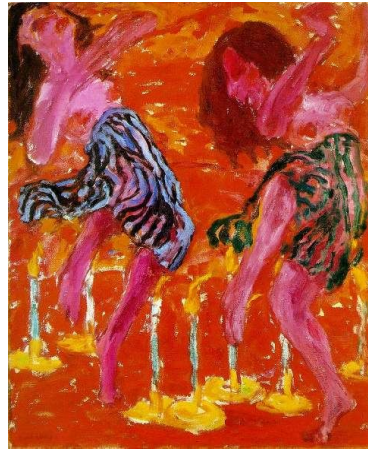
45) H. W. Janson, 김윤수 외 역(1978), 미술의 역사, 서울: 삼성출판사, p.611

46) 정숙자(1991), 전계서, p.162

47) 이정희(1995), 전계서,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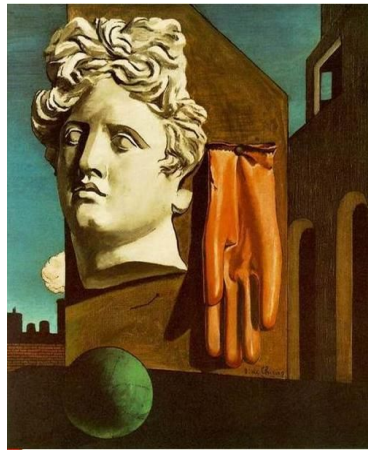
<그림 1> 독일 표현주의 키르히너
거리의 여인들, 1914
(독일표현주의 미술, 정미희, p.9)



<그림 2> 독일 표현주의 놀데
양초와 춤추는 여인들, 1912
(독일표현주의 미술, 정미희, p.5)



<그림 3> 추상미술 칸딘스키
푸른 하늘, 1940
(칸딘스키: 그림자 없는 남성적
영혼의 귀족주의, 김숙경, p.117)



<그림 4> 초현실주의 데 키리코
사랑의 노래, 1914
(피카소: 무한한 창조의 샘,
프란체스코 갈루치, p.80)



<그림 5> 환상미술 클레

노란 새들이 있는 풍경, 1923~1932

(파울 클레, 하요 뒤흐팅, p. 76)

(1) 야수주의(Fauvism, 1905~1907)

야수주의는 1905년 파리의 살롱 도톤느(Salon d'Automne)에 출품한 젊은 화가들이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 등의 새로운 양식으로 그린 작품에 대하여 당시의 비평가인 루이 북셀(Louis Vauxcelles, 1870~1943)이 '야수들(Fauve)'이라 부른 데서 유래 되었다⁴⁸⁾. 이러한 야수주의는 전통적 회화 방식에 반대하며 감성의 직접적 표현을 중시하고 명암의 정해진 양식을 피하며, 형태의 대담한 변형과 강렬한 원색의 표현으로 색채 자체의 표현을 추구한 급진적 새로운 양식이다⁴⁹⁾.

야수주의의 특징은 극도로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를 도발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⁵⁰⁾. 그들은 고희의 순수한 감정 표현과 신인상주의 색채이론에 영향을 받아 찬란하고 순수한 색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사실적, 재

48) 오광수(1987),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일지사, p.56

49) 송현선(2012), "북 아트와 미술사 연계 지도방안 연구 -미술교과 내의 20세기 전반 미술 사조 중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50) 홍태희(2006), 3일 만에 읽는 서양미술사, 서울: 서울문화사, p.99

현적 역할에서 해방시켜 감각적으로 호소하는 표현력을 확립하려고 하였다⁵¹⁾. 야수주의의 대표적 화가로는 앙리 마티스(Henri Emile Benolt Matisse, 1869~1954)와 안드레 드랭(André Derain, 1880~1954) 등이다.

야수파를 이끈 앙리 마티스는 세잔느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는 색채를 좋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단순히 색채로 사물을 묘사하려고 하지는 않았다⁵²⁾. 또한, 고전적인 규칙으로부터 회화의 양식을 해방시키고, 장식적 모티브로 화면을 표현함으로써 회화의 개념을 바꾸었다⁵³⁾. <그림 6>은 야수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앙리 마티스의 ‘붉은 화실’이다. 마티스는 평소 붉은색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 그림 역시 붉은색으로 가구와 화실을 표현하였다⁵⁴⁾. 그리고 <그림 7>은 드랭의 ‘런던교’란 작품인데, 그에게 있어 색채는 그림의 주제였으며, 그는 색채라는 매개체를 통해 묘사라는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였다⁵⁵⁾.

이들은 각자 다른 구성과 소재를 보여주었으나 모두 어디까지나 강렬한 색채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과 회화의 자율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⁵⁶⁾. 샤갈 역시 작품초기에 고갱이나 고흐와 같은 화가들로부터 강렬한 터치와, 면으로 구성하는 색의 대비와 관계로서의 장식적 뉘앙스를, 야수파로부터 색채 자체에 갖추어진 자율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법을 배웠다⁵⁷⁾.

51) 권준범(1998), “20세기 현대 미술사 흐름 파악 -각각의 미술운동을 중심으로-”, 사향미술교육논총, 6(1), p.245

52) 로즈메리 램버트, 이석우 역(1993), 20세기 미술사, 서울: 열화당, p.21

53) 이지영(2013),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20세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54) 로런스 고윙, 이영주 역(2012), 마티스: 아름다운 색의 마술사, 서울: 시공사, p.132

55) 사라 휘트필드, 이대일 역(1988), 야수파, 서울: 열화당, p.44

56) 권준범(1998), 전계서, p.245

57) 오윤주(2004), 전계서, p.9



<그림 6> 야수주의 마티스

붉은 화실, 1911

(마티스: 아름다운 색의 마술사,
로런스 고윙, p.132)



<그림 7> 야수주의 드랭

런던교, 1906

(야수파, 사라 휘트필드, p.44)

(2) 입체주의(Cubism, 1900~1914)

입체주의는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에서 야수주의 운동을 전후해서 일어난 미술운동⁵⁸⁾으로 입체주의 미술가들은 자연의 외형을 재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상에 자연의 본질적인 법칙과 속성을 분석하여 형태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며⁵⁹⁾, 형태의 본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사물을 입체적, 다시점(多時點)으로 표현했다⁶⁰⁾.

입체주의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하는 회화작품으로 분할된 투시법이다⁶¹⁾. 이러한 입체주의는 몇 사람에게 의한 조형적인 시도로 발생하였는데 그들은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와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이다⁶²⁾. 이들은 2차원의 표면에 3차원 구

58) 박갑영(2001),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서울: 두리미디어, p.166

59) 손희낙(2001), "기하학적 추상회화와 색채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60) 네이버, 입체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372&cid=47310&categoryId=47310>, 2015. 4.19.

61) H. W. Janson and Anthony F. Janson, 최기득 역(2008), 서양미술사, 서울: 미진사, p.479

62) 박갑영(2001), 전개서, p.166

조를 나타내는 기하 형태를 이용하며⁶³⁾, 새로운 재료와 기법인 스텐실, 눈속임 기법, 콜라주 등 다양한 조형수단을 이용하여 현대 도시의 일상생활을 표현했다⁶⁴⁾.

처음으로 입체과 회화를 그렸던 스페인 출신의 화가 피카소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그의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⁶⁵⁾, <그림 8> ‘꿈’은 피카소의 특징인 형태를 구조화하여 입체적 표현을 한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그의 연인 프랑스 출신 마리 테레즈의 22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⁶⁶⁾.

그리고 피카소의 다음 세대 입체주의자인 들로네는 다채로운 색채와 다이내믹한 구성으로 입체과 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그림 9> ‘생 세브랭 교회 No. 1’은 고딕성당 특유의 골격과 구조에 집중하여 스테인드글라스 사이로 섬세하게 스며드는 빛의 프리즘 효과를 보여주는 색채로 처리하였다⁶⁷⁾.

입체주의의 다양한 시각과 시점의 이동은 작품에서 복잡한 조직으로 한 형태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며, 이로 인해 형태의 왜곡과 추상화로 표현되는 조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⁶⁸⁾. 이런 면에서 사갈은 입체주의로부터 조형을 자유롭게 다루고 형태를 배치하는 방법을 배워⁶⁹⁾ 그의 작품 속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63) 노희선(2004),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64) 박선희(2007), “20세기 초 회화작품의 컬러이미지 분석에 따른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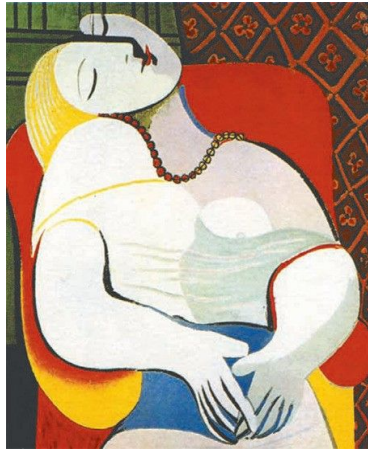
65) 로즈메리 램버트, 이석우 역(1986), 전계서, p.14

66) 네이버, 입체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789&cid=46720&categoryId=46871>, 2015.6.6.

67) 네이버, 에펠탑과 오르피즘,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0&contents_id=7694, 2015.4.15.

68) 윤지현(2006), “입체주의 양식을 활용한 자화상 표현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69) Damperat, Marie-Hélène, Sylvie Forestier, and Éric de Chassey, 이재형 역(2000), 사갈, 창해 ABC 북 2, 서울: 창해, p.100



<그림 8> 입체주의 피카소
꿈, 1932
(피카소: 무한한 창조의 샘,
프란체스코 갈루치, p.81)



<그림 9> 입체주의 들로네
생 세브랭 교회 No. 1, 1909
(입체주의, 닐 콕스, p.131)

(3) 초현실주의(Surrealism, 1924~1966)

샤갈의 화풍은 특정 화풍에 속하진 않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 초현실주의적인 특징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초현실주의는 20세기 초 두 번의 비극적인 세계 대전 사이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 문학예술운동으로⁷⁰⁾, 1924년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1896~1966)에 의해 창립되었다.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의 해방, 상상력과 합리성으로부터 화가의 자유를 목표로 하여, 꿈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환각, 순수 환상과 괴기적인 작품을 제작했다⁷¹⁾. 또한, 이들은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을 통하여 보편적인 오브제에 부여했던 의미나 실용성을 거부하고, 순수한 공(空)의 상태에서 접해 있는 오브제들 사이에 큰 영향을 주었다⁷²⁾.

70) 송현선(2012), 전계서, p.41~42

71) 권준범(1998), 전계서, p.251

72) 신현숙(1992), 초현실주의: 예술 각 분야에 나타난 모험 정신과 그 한국적 수용, 서울: 동아출판사,

초현실주의 작품의 표현기법으로는 오토마티즘(Automatism : 무의식중에 몸의 움직임에 의해 미지의 형태를 그리는 자동기술법⁷³⁾), 데페이즈망(어떤 사물이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겨 엉뚱한 사물끼리의 만남으로 표현하는 기법), 데칼코마니(Décalcomanie : 종이를 접었다 펼 때 생기는 대칭적인 우연한 얼룩이나 어긋남의 표현) 등이 있다.

초현실주의 대표적 작가로는 스페인의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와 벨기에의 르네 마그리트(René François Ghislain Magritte, 1898~1967), 독일의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등이 있다. 달리는 생생한 환상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그것이 실제세계와 접촉하도록 하여 꿈을 실재화 시켰는데⁷⁴⁾, <그림 10>은 달리의 대표작 중 하나인 '기억의 영속'이다. 이 작품은 그의 고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무의식이 반영되었다. 작품 속 시계는 과거의 그와 억눌린 그의 욕망을 보여주며, 또한 그의 가족사와 성적 욕망도 포함되어 있다⁷⁵⁾.

마그리트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예기치 않은 공간에 나란히 두거나 크기를 왜곡시키고 논리를 뒤집어 이미지의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림 11>은 '레슬러의 무덤'이란 작품으로 여기서 그는 장미꽃의 크기를 방 안 가득한 크기로 왜곡시켜 이미지의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에른스트는 프로이트적인 잠재의식을 화면에 정착시키는 오토마티즘을 원용했지만, 1925년 프로타주를 고안하여 새로운 환상회화의 영역을 개척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환각 이미지'를 시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림 12>는 에른스트의 '도시 전경'으로, 그는 이 작품에서 세월의 허무, 무상함, 그리고 침묵을 적막한 폐허 속 달빛으로 표현하였다⁷⁶⁾.

p.238

73) 이주희(2013), 전계서, p.48

74) 로즈메리 람버트, 이석우 역(1986), 전계서, p.58

75) 네이버, 기억의 지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841&cid=46720&categoryId=46854>, 2015.4.13.

76) 네이버, 에른스트 도시의 전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

이러한 초현실주의는 20세기에 나타난 다른 예술운동에 비해 세계적으로 가장 폭 넓게 확산되었던 예술운동이며, 인간의 정신적 해방에 따른 보다 넓은 예술의 세계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⁷⁷⁾.

오늘날 샤갈의 그림은 그의 꿈과 상상력을 표현하는데 있어 형태의 방법으로 입체주의를 받아들였고, 신비주의의 강렬한 추상적 색채에서 유대인의 민족예술을 연상케 하는 신비스럽고 요정과도 같은 색채를 발견했다⁷⁸⁾. 그의 작품은 앞서 살펴 본 야수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의 독특한 총체이며 이러한 표현방법을 기저로 그만의 강렬한 작품 세계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할 수 있다⁷⁹⁾.

oid=082&aid=0000065329, 2015.6.9.

77) 이지영(2013), 전개서, pp.37~38

78) 샤갈, 에른스트, 미로(1973), 현대미술전집 9, 서울: 금성출판사,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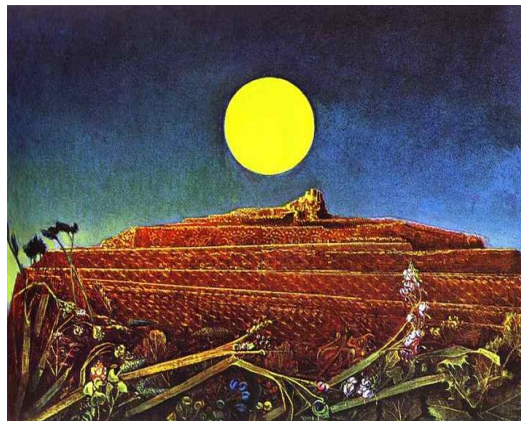
79) Charlotte Lichtblau(1988), Chagall and The Bible, Religion and Intellectual Life 5, pp.97~100



<그림 10> 초현실주의 달리
기억의 영속, 1931
(살바도르 달리,
크리스티아네 바이테만 p.18)



<그림 11> 초현실주의 마그리트
레슬러의 무덤, 1961
(르네마그리트: 1898~1967:
가시화 된 사유, 마르셀 파케, p.41)



<그림 12> 초현실주의, 에른스트
도시 전경, 1935~1936
(미술로 보는 20세기, 이주현, p.210)

2. 마르크 샤갈 회화 표현의 구성요소

20세기 현대 미술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하고 환상적이며 독자적인 작품을 제작한 샤갈의 대표적 회화 표현 구성요소는 구도와 공간, 색채, 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그의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하는 초석이 된다⁸⁰⁾.

1) 구도와 공간

샤갈의 작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간의 연속성과 공간의 원근법을 무시한 비합리적, 기하학적 형태의 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환상성이라 할 수 있다⁸¹⁾. 샤갈의 회화구도에서 나타나는 이 기하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면서 원근법이 무시된 환상적 구도는 일상적 틀을 넘어 이미지가 생동하는 심리적이면서 초자연적인 공간을 구성하게 만들었다⁸²⁾.

샤갈은 1910년 파리 몽파르나스의 라 튀슈에서 격정적인 모더니스트 회화 혁명을 실험하기 시작했는데⁸³⁾, 당시 유행했던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 대상을 묘사하기보다는 단적인 화면 구축으로 독특한 화풍을 이루었으며,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그 이미지를 표현했다⁸⁴⁾. 특히 들로네의 오르피즘과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 1881~1955)의 형태 대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샤갈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관심이 많았고,

80) 나은화(2014), “마르크 샤갈의 작품 <이삭번제>에 담긴 의미: 예수 상징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81) 김정선(2012), 전계서, p.42

82) 오윤주(2004), 전계서, p.20

83) 김종근(2004), 샤갈, 내 영혼의 빛깔과 시, 서울: 평단문화사, p.42

84) 배남이(2002), 전계서, p.42

형태와 색채를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배치함으로써 심리적인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았다⁸⁵⁾. <그림 13> ‘3시 반 또는 시인’을 보면 절단면이 나타나고 원과 삼각, 사각형 등 기하학적 형태의 입체주의의 영향이 나타나며, 형태 뿐 아니라 색채의 유연한 사용과 환상을 표현한 부분이 돋보인다⁸⁶⁾. 또한, 다양한 형상들이 한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는 동시성은 샤갈의 상상력을 통한 현실의 변형과 재구성이라⁸⁷⁾ 할 수 있는데, <그림 14>는 동시성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샤갈의 ‘일곱 손가락의 자화상’이다. 다양한 색깔을 짜 놓은 팔레트를 들고 있는 화가 자신의 뒤쪽에는 에펠탑이 있는 파리 시내가 보인다. 이젤의 그림과 그 뒤쪽 고향풍경이 비합리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 모순되는 세계 속에서 결국 자신이 양쪽 세계, 즉 화가의 내면과 외면, 그리고 현재와 과거, 모두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⁸⁸⁾.

샤갈에게 있어서 면의 분해를 통한 작품 구성은 물체의 입체적인 파악이 아닌 화면에 상상력을 불어 넣어 통일감을 주고 자율적 환상의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⁸⁹⁾. 즉, 입체파의 신선한 형상을 익히면서 화면을 기하학적인 블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화면은 더욱 몽상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으로 완성됨을 알 수 있다⁹⁰⁾. 이러한 구성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림 15> ‘나와 마을’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자신과 소, 나무, 마을 등 추억의 이미지를 원과 삼각형, 사각형 등 대상의 기하학적 구성을 통해 평면화 시켜 그의 마음 속 추억의 추상적 이미지를 질서 있게 정리하여 회상하고 있다⁹¹⁾.

또한, 샤갈의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중력을 무시하고 떠있는 인체묘사나

85) 이슬(2010), 전계서, pp.29~30

86) 박지은(2014),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마스크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87) 나은화(2014), 전계서, p.17

88) 김민지(1995), 전계서, p.34

89) 배남이(2002), 전계서, p.39

90) 김정선(2012), 전계서, p.42

91) 이슬(2010), 전계서, p.30

하나의 화면에 온갖 물체의 실제 크기를 무시하여 묘사하는 등의 초현실적 표현 방법도 주목되는데⁹²⁾, <그림 16> ‘누워있는 시인’에서는 샤갈의 초현실적 공간 요소를 활용한 회화 구성이 돋보인다. 화면 아래 누워있는 시인의 꿈이 화면 전체로 펼쳐지며, 청색이 물든 듯 분홍색 하늘은 시인의 몽상을 반영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의 그의 고향 비테프스크의 자연을 환상적인 요소로 나타내고 있다⁹³⁾. <그림 17> ‘제한 없는 시간’은 샤갈의 대작 중 하나로 초현실주의자들이 구사하는 테크닉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는데, 커다란 추시계를 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날아가는 물고기라는 기묘한 물상 아래 어슴푸레 내려다보이는 구도로 샤갈의 고향 비테프스크가 보이며, 진행형의 회화, 생명감의 표현을 함으로써, 회화 공간의 한계를 거부하고 있다⁹⁴⁾. 또한, <그림 18> ‘창문’은 공간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열려진 창문을 통해 빛의 표현과 밀도 있는 화면으로 인한 풍경과의 거리감을 나타내며, 창문의 분명하지 않은 윤곽선이 안팎의 공간을 하나로 융화시켜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었다⁹⁵⁾.

이렇듯, 샤갈은 현실과 꿈꾸는 세계를 한 화면에 표현하려 했다. 그래서 대각선 구도나 상징적인 여러 가지 형태를 이용하여 한 화면에 초자연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공간들로 구성하여 환상적 이미지를 창출해냈다⁹⁶⁾. 결국 샤갈의 회화는 큐비즘의 영향과 초현실적인 공간 구성 등의 영향을 받았으나, 샤갈 자신만의 경험, 감정, 상상 등에 더 중점을 두고, 회화적 현실을 새로운 예술세계로 구성하여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⁹⁷⁾.

92) 이광석(2013), 마르크 샤갈의 도시 위에서: 이광수 시집, 서울: 그림과 책, p.69

93) Michel Makarius(1993), CHAGALL, London: Studio Editions Ltd, pp.76~77

94) 권오욱(1994), “마르크 샤갈 회화의 시적 이미지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95) Roy McMullen(1968), The World of Marc Chagall, New York: Pay & wine, pp.30~45

96) 배남이(2002), 전게서,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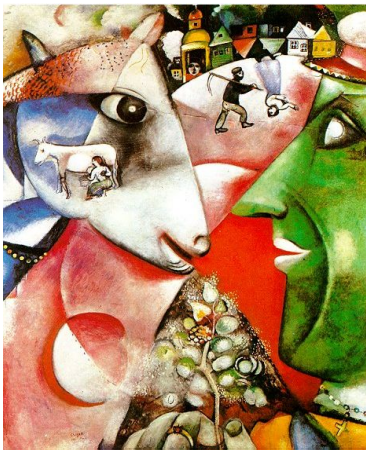
97) 오윤주(2004), 전게서,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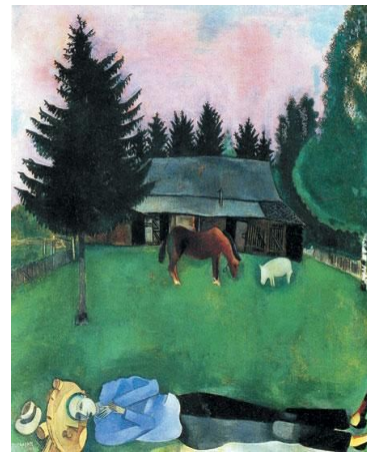
<그림 13> 구도와 공간
3시 반 또는 시인, 1911
(샤갈: 몽상의 은유,
다니엘 마르슈소, p.27)



<그림 14> 구도와 공간
일곱 손가락의 자화상, 1913
(샤갈: 몽상의 은유,
다니엘 마르슈소, p.33)



<그림 15> 구도와 공간
나와 마을, 1911
(샤갈, 꿈꾸는 마을의 화가,
마르크 샤갈, p.174)



<그림 16> 구도와 공간
누워있는 시인, 1915
(샤갈, 모니카 봄-두첸, p.105)



<그림 17> 구도와 공간

제한 없는 시간, 1930~1939

(샤갈: 내 슬프고도 즐거운 마음
자클린 루메, p.27)



<그림 18> 구도와 공간

창문, 1924

([http://classroom.re.kr/uploadfile/
content/content10/second02/data06/
sub28/](http://classroom.re.kr/uploadfile/content/content10/second02/data06/sub28/), 2015.6.29.)

2) 색채

“색채는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림의 형식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다”⁹⁸⁾라고 할 정도로 샤갈은 색채에 집중하며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는 샤갈이 예후다 펜에게 배울 때부터 색채를 독창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데에서이다⁹⁹⁾. 그 후, 레온 박스트의 아뜰리에를 다닐 때, 박스트에게 색채의 과감한 절약을 배웠으며, 원근법에서 벗어나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가 아닌 주관에 따라 색채를 구성하는 색채화가로서의 훈련을 쌓아갔다¹⁰⁰⁾.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 19>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는 그의 피앙세

98) 世界美術全集 35(1977), 샤갈, 東京: 小學館, p.123

99) 박지은(2015), 전계서, p.22

100) 이슬(2010), 전계서, p.26

벨라를 그린 것으로, 그의 스승 박스트의 가르침인 색채를 아끼는 것과 앞 가슴의 브로치, 허리 부분의 단추처럼 다소 장식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¹⁰¹⁾.

파리에 머물게 된 그는 야수파의 강렬한 색채표현을 받아들였고, 고갱의 바람처럼 자연주의와 멀어졌다. 레제, 들로네와 가까웠던 그는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색채를 포기하지 않았다¹⁰²⁾. 파리에서 그의 작품은 색조가 밝아지고 원색의 강한 대비가 중심이 되며 많은 색 면으로 전체를 분할하듯 화면 구성을 이루는데, 파리에 있는 동안 그는 밝은 색채에 눈을 뜨고서 차차 독자적인 화법을 전개해 갔다¹⁰³⁾. 이 시기 작품으로 <그림 20> ‘탄생’은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졌는데, 축하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 상징적으로 표현되었고, 빨강과 초록의 보색을 사용함으로 색채를 강렬하고 힘차게 표현하였다¹⁰⁴⁾.

사같은 그의 회화에서 주로 노랑, 초록, 파랑, 빨강의 색조를 즐겨 사용하였는데, <그림 21> ‘술잔을 든 이중 초상’은 이러한 색조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화면 전체에서 밝은 빛과 억제된 동적인 느낌이 느껴지는데, 이는 배경 오른쪽에 두텁게 칠해진 노란색의 질감과 왼쪽의 청백색이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세 인물의 일체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¹⁰⁵⁾. 원색의 과감한 사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색채가 주는 공간적인 효과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¹⁰⁶⁾. <그림 22> ‘아뜰리에’는 마티스의 실내를 그린 그림들의 장식적 배치를 상기시키며 자유분방한 색채의 사용에 의해 끊임없는 동요를 느끼게 한다¹⁰⁷⁾. 또한, <그림 23> ‘산책’에서는 색채를 형태와 조화시키기 위해 빨

101) 김민지(1995), 전계서, p.40

102) 김정선(2012), 전계서, p.43

103) 김민지(1995), 전계서, p.41

104) 이슬(2010), 전계서, p.27

105) 권오욱(1994), 전계서, p.39

106) 박지은(2015), 전계서, p.25

107) 오윤주(2004), 전계서, p.13

강과 초록의 두 색상을 사용하고, 좌측의 축하 꽃다발을 의미하는 화려한 빨강 천과 대치시키고 있는 배경 속으로 사라져 가는 연분홍색 집이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¹⁰⁸⁾.

샤갈이 다시 파리에 돌아온 1920년대에 그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실내의 꽃다발을 즐겨 그렸는데, 이 시기 작품 속에는 새로운 채색법이 사용되었다¹⁰⁹⁾. 또한, 그의 새로운 회화 양식으로 색채와 형태를 사랑으로 접목시키는 기법이 시작되었는데¹¹⁰⁾, <그림 24> ‘창가의 이다’는 이 새로운 기법이 시작됨을 알려준 대표적인 작품으로, 강한 윤곽선이 없고, 넓게 칠한 물감의 층이 투명감을 나타내며¹¹¹⁾, 색채의 뉘앙스에 의해 화면을 부드러운 감정으로 흐르게 한다¹¹²⁾. <그림 25> ‘여 곡마사’는 뚜렷한 윤곽선이 없는 몽롱한 느낌의 색 면이 단색조로 보이는 전체화면 속에서 노랑, 빨강, 파랑이 모자이크와 같은 미묘한 색광을 발하고 있다¹¹³⁾.

샤갈은 색채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후기 작품에서 그의 색깔은 “공간인 동시에 본질이다. 그것은 모양을 만들고, 윤곽을 넓히고, 형상을 흡수한다.”고 평가되기도 했다¹¹⁴⁾. <그림 26> ‘초록 말’에서 형태를 상징적 표상으로 나타내기 위해, 환상적인 화면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겨울의 추운 추억과 따스한 봄의 추억을 나타내주는 정신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게끔 색채를 표현했다¹¹⁵⁾.

2차 세계 대전 발발 이후 파리를 떠나 뉴욕으로 망명했던 샤갈은 그의 사

108) 오윤주(2004), 상계서, p.14

109) 이슬(2010), 전계서, pp.27~28

110) 김민지(1995), 전계서, p.43

111) 이수경(2000),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회화에 나타난 조형언어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43

112) 김민지(1995), 전계서, p.43

113) 이수경(2000), 전계서, p.44

114) Damperat, Marie-Hélène, Sylvie Forestier, and Éric de Chasse, 이재형 역(2000), 전계서, 서울: 창해, p.64

115) 오윤주(2004), 전계서, p.15

랑하는 아내 벨라를 잃은 슬픔을 겪으며, 8년간의 망명생활을 정리한 뒤 1948년 파리로 돌아온다¹¹⁶⁾. <그림 27> ‘비테프스크 위의 누드’는 이러한 암울했던 시대와 그의 상황을 담은 대표작으로, 창백한 누드와 회색빛으로 물들은 그의 고향 마을의 풍경이 주는 우울함은 이전에 그린 화려한 꽃과 평화스러운 풍경과는 많이 대조적이다¹¹⁷⁾.

이와 같이 샤갈의 작품에 나타난 다양하고 신비스러운 색상은 화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필연적인 것이었으며¹¹⁸⁾, 샤갈이 색채를 신비라고 말하며, 형태나 구조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신적 세계를 관념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려함이었다¹¹⁹⁾. 결국 샤갈은 상상력에 의한 환상적 이야기를 신비한 색채와 조화롭게 접목하여 서정적이면서 환상적인 세계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였다¹²⁰⁾. 그의 걱정적이고 신비로운 인간의 원초적인 향수와 꿈, 격변하는 미술사적 조류 속에서 그만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예술가로서의 끊임없는 열정의 결과가 그를 지금의 샤갈로 이끌었다¹²¹⁾.

116) 이슬(2010), 전게서, p.28

117) 김정선(2012), 전게서, p.45

118) 김민지(1995), 전게서, p.45

119) 배남이(2002), 전게서, p.40

120) 도지숙(2005),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회화세계에 대한 연구: 환상적 표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121) 오윤주(2004), 전게서, p.16



<그림 19> 색채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 1909
 (샤갈, 꿈꾸는 마을의 화가
 마르크 샤갈, p.171)



<그림 20> 색채
 탄생, 1910
 (샤갈, 모니카 봄-두첸, pp.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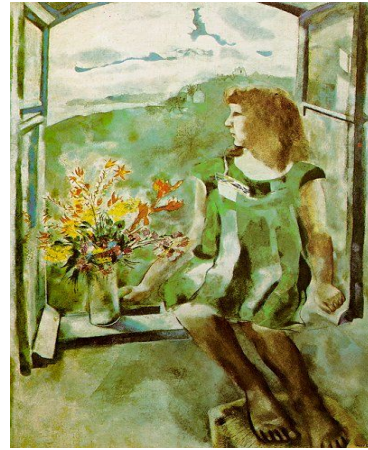
<그림 21> 색채
 술잔을 든 이중 초상, 1917
 (샤갈: 몽상의 은유,
 다니엘 마르슈소, p.12)



<그림 22> 색채
 아틀리에, 1910
 (샤갈, 모니카 봄-두첸, pp.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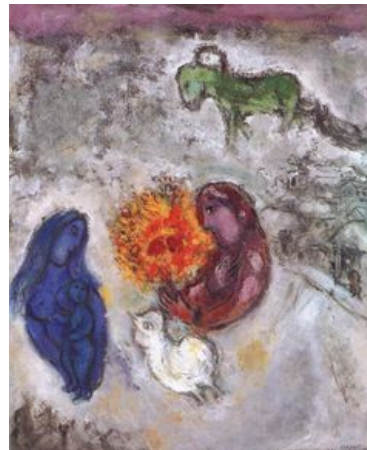
<그림 23> 색채
산책, 1917
(샤갈, 꿈꾸는 마을의 화가
마르크 샤갈, p.185)



<그림 24> 색채
창가의 이다, 1924
(샤갈: 몽상의 은유,
다니엘 마르슈소, p.68)



<그림 25> 색채
여곡마사, 1931
([http://mural.kr/product/detail.html?
product_no=1484&cate_no=249&display
_group=1](http://mural.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484&cate_no=249&display_group=1), 2015.6.29.)



<그림 26> 색채
초록 말, 1956
([http://blog.naver.com/visaber/
220405960680](http://blog.naver.com/visaber/220405960680), 2015.7.1.)



<그림 27> 색채

비테프스크 위의 누드, 1933

(샤갈: 내 영혼의 빛깔과 시, 김종근, p.218)

3) 주제

모든 예술 작품에는 작가가 지니고 있는 내면세계가 담겨져 있는데, 예술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작가의 내면세계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외부와 교감을 하게 되고, 교감을 통해 조형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¹²²⁾. 즉, 샤갈의 예술 세계는 그의 개인적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내면의 상상에서 나온 내용이라 하겠다¹²³⁾. 특히, 샤갈은 몇 가지 주제에 집착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유년시절의 회상으로 일관되는 일상의 향수적 주제, 사랑에 관한 주제, 그의 작품세계의 사상적 기저가 되는 종교적 주제가 그것이다¹²⁴⁾.

122) 박지은(2014), 전계서, p.13

123) 최예윤(2006), 전계서, p.12

124) 오윤주(2004), 전계서, p.26

(1) 향수

샤갈의 작품 중 많이 보이는 ‘향수’라는 주제는 그의 유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한 때를 보낸 고향마을 비테프스크에 대한 회상을 말한다. “나의 예술의 뿌리를 키웠던 땅은 내 고향 비테프스크였다. …… 현재에도 내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나는 고향에 충실하려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나의 그림을 통해서 나는 나의 고국에 충실하여 왔다고 믿고 있다”¹²⁵⁾ 라는 말처럼 샤갈의 인생전반에 걸쳐 제작한 작품 속에 주제로 표현되고 있다¹²⁶⁾.

어린 시절 추억은 예술가들에게 공통적인 영감의 원천이지만 샤갈과 같이 지속적이고 풍부한 예는 드물다. 샤갈의 예술은 고향마을에 대한 추억의 샘에서 시작되어 점점 그의 예술을 풍요롭게 만들어간 뿌리라 할 수 있다¹²⁷⁾.

<그림 28> ‘초록 눈의 집’은 그가 유태인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러시아의 변방 도시 비테프스크를 주제로 담고 있다¹²⁸⁾. 또한 <그림 29> ‘창가에서 본 파리’는 샤갈 자신의 이중적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파리로 유학을 간 샤갈은 그의 고향 비테프스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윽한 눈빛으로, 또 새로운 도시인 파리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작가 자신을 초현실적인 요소로 표현하였다. <그림 30> ‘곡예사’는 샤갈의 어린 시절 자주 봐 왔던 서커스에 출현했던 곡예사를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며, 샤갈은 이 작품 외에도 유년시절 추억의 서커스를 주제로 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그림 31>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은 샤갈이 파리에 머물렀을 무렵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으로, 회화 속 등장하는 남자는 샤갈의 삼촌이다. 그의 고향과 삼촌에 대한 그리움이 이 작품 속에 잘 녹아있다.

이처럼 샤갈은 자신의 원형 속에 자리 잡은 상상력을 마치 꿈꾸는 듯 오

125) Marc Chagall(1947), *The Artist, The Work of th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25

126) 배남이(2002), 전게서,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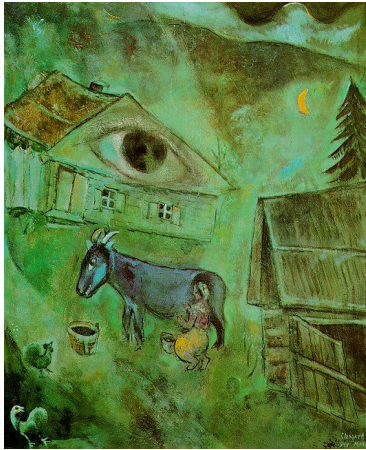
127) 김정선(2012), 전게서, p.32

128) 권오욱(1994), 전게서, p.30

묘한 기법으로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고 있으며, 과거와 현실을 한 공간에 넣어 서로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¹²⁹⁾. 또, 그의 작품 속에 현실을 초월한 고향을 자연스럽게 녹여 그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향으로서의 근원적인 향수의 광경을 주제로 표현했다¹³⁰⁾.

129) 최예윤(2006), 전게서,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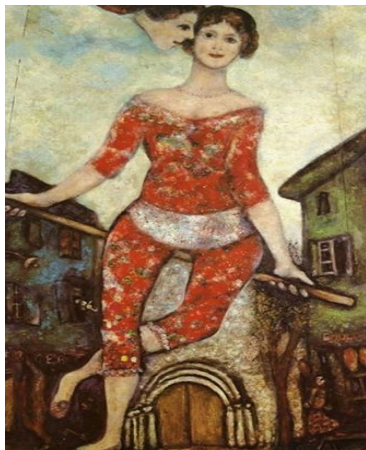
130) 오윤주(2004), 전게서, p.39



<그림 28> 주제 - 향수
 초록 눈의 집, 1944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ESbw
 &artid=11358911](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ESbw&artid=11358911), 2015.6.29.)



<그림 29> 주제 - 향수
 창가에서 본 파리, 1913
 (샤갈: 내 슬프고도 즐거운 마을,
 자클린 루메, p.34)



<그림 30> 주제 - 향수
 곡예사, 1930
 (샤갈: 몽상의 은유,
 다니엘 마르슈소, p.62)



<그림 31> 주제 - 향수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1912~1913
 (샤갈: 내 슬프고도 즐거운 마을,
 자클린 루메, p.7)

(2) 사랑과 낭만

샤갈의 예술에 있어서 사랑과 낭만이라는 주제는 주로 그의 인생 초기, 중기에 다루어졌으며, 샤갈의 거의 모든 작품에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들이었다¹³¹⁾.

“샤갈의 그림 속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영혼으로, 천사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영감을 주는 힘으로써 끝없이 모습을 바꿔가며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있다”¹³²⁾ 그녀가 바로 벨라이다. 사랑을 내용으로 한 그의 수많은 작품들은 벨라와의 행복했던 젊은 날의 추억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많은데, 샤갈은 평생 소년 취향적인 아름다운 이미지로 신부와 약혼자들을 그렸다¹³³⁾. 샤갈은 그의 뜻대로 사랑의 자유로움을 무중력 상태로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상상력을 화폭에 옮겼는데¹³⁴⁾, 이들은 주위의 시선이나 배경에 아랑곳없이 사랑의 열정과 행복감의 황홀경에 몰입해 공중에 부유하고 있다¹³⁵⁾. 샤갈의 초기 걸작에 속하는 <그림 32> ‘도시 위에서’는 사랑에 빠진 연인이 꼭 껴안은 상태로 중력의 힘을 받지 않고 비테프스크의 하늘을 날아간다¹³⁶⁾. <그림 33> ‘에펠탑의 신랑신부’는 연인들이 에펠탑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그들을 태운 수탉과 파리의 자유로운 햇빛이 부드럽고 감각적인 색조로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¹³⁷⁾. <그림 34> ‘생일’은 7월 7일 그의 생일에 벨라와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을 담은 작품이다. 그의 영원한 신부 벨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평생토록 그의 마음을 지배할 영혼을 사로잡은 사랑을 그렸는데¹³⁸⁾,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샤

131) 배남이(2002), 전계서, p.37

132) Erich Neumann(1995), Art and Creative unconsciou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Bolingen Series LXI, p.139

133) 권오욱(1994), 전계서, p.31

134) 최예윤(2006), 전계서, p.17

135) 권오욱(1994), 전계서, p.31

136) 최예윤(2006), 전계서, p.17

137) 다니엘 마르슈소, 김양미 역(1995), 샤갈-몽상의 은유, 서울: 시공사, p.83

138) 박지은(2014), 전계서, p.18

같은 중력을 무시한 자족적인 샤갈과 벨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¹³⁹⁾.

또한, 사랑의 표현은 연인들의 안식처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꽃다발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시기 대부분의 작품에는 꽃다발이 커다란 공간을 차지하여 화려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표현 한다¹⁴⁰⁾. 이러한 표현의 대표작 중 하나인 <그림 35> ‘백합 아래의 연인들’에서는 연인과 꽃의 조화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샤갈은 꽃다발을 그리며 자연에 융화되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¹⁴¹⁾.

샤갈에게 있어 연인과의 사랑은 그의 작품에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고, 따라서 연인과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샤갈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¹⁴²⁾. 사랑은 그의 작품 속에서 인간의 성실성과 진실함을 지켜주는 하나의 희망이었다¹⁴³⁾.

139) 모니카 봄-두첸, 남경태 역(1998), 샤갈, 파주: 한길아트, p.103

140) 오윤주(2004), 전게서,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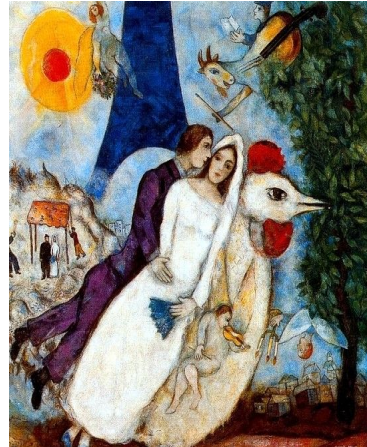
141) 김민지(1995), 전게서, p.25

142) 김정선(2012), 전게서, p.37

143) 오윤주(2004), 전게서, p.30



<그림 32> 주제 - 사랑과 낭만
도시 위에서, 1914~1918
(샤갈: 몽상의 은유,
다니엘 마르슈소, pp.48~49)



<그림 33> 주제 - 사랑과 낭만
에펠탑의 신랑신부, 1938
(샤갈: 내 슬프고도 즐거운 마을
자클린 루메, p.25)



<그림 34> 주제 - 사랑과 낭만
생일, 1915
(샤갈, 꿈꾸는 마을의 화가,
마르크 샤갈, p.181)



<그림 35> 주제 - 사랑과 낭만
백합 아래의 연인들, 1922~1925
(샤갈, 모니카 봄-두첸, p.190)

(3) 종교

어느 화가나 그들이 성장한 환경과 종교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¹⁴⁴⁾. 샤갈 역시 종교와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¹⁴⁵⁾. 샤갈은 “성서는 자연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고 나는 이 비밀을 전하려고 노력했다”¹⁴⁶⁾라고 말하며 그의 삶과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작품을 보면 그가 겪었던 환희와 슬픔, 꿈과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 등의 내·외면적 상황을 그가 믿는 종교에 더욱 의지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성서교육과 신앙생활을 통해 유대인의 비운을 가슴에 안고, 자신의 고향을 천국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는데¹⁴⁷⁾, <그림 36> ‘인간의 창조’는 한 천사가 인간을 지상에서 천상의 영역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습작으로 그린 작품으로¹⁴⁸⁾, 칼베르의 노트르담 성당의 12개의 벽에 그리기로 되었었지만, 그 계획은 끝을 맺지 못했다¹⁴⁹⁾.

또한, <그림 37> ‘흰 십자가’에서와 같이 샤갈은 그리스도의 책형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그리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의 불안과 위기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심리적 동기에서라고 볼 수 있다¹⁵⁰⁾.

<그림 38> ‘순교자’에서는 폴란드와 그 외 동유럽 국가들의 유대인 고난과 관계되어 2차 세계대전에 있었을법한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작품에 나타난 말뚝은 그의 종교적 분위기를 자아낸다¹⁵¹⁾. 이러한 샤갈의 정신세계는 유대인 특유의 신앙과 민족성을 토대로 한 종교성에 기인한 것이며, 그 정신세계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 되어 더욱 자유롭고 솔직하

144) 김민지(1995), 전게서, p.27

145) 배남이(2002), 전게서, p.38

146) Chareles Sorlier(1882), Chagall by Chagall, New York: Harrison House, p.204

147) 박지은(2015), 전게서, p.20

148) 마리 엘렌 당페라 외 2명, 이재형 역(2001), 샤갈, 서울: 창해, p.70

149) 최예윤(2006), 전게서,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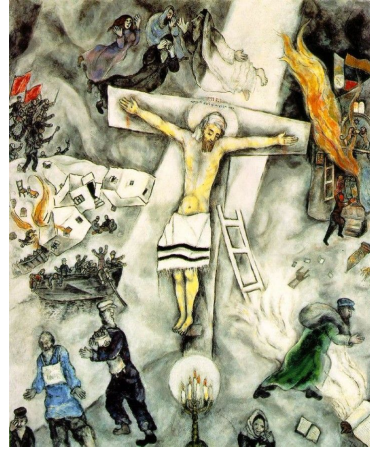
150) 김민지(1995), 전게서, p.30

151) 오윤주(2004), 전게서, pp.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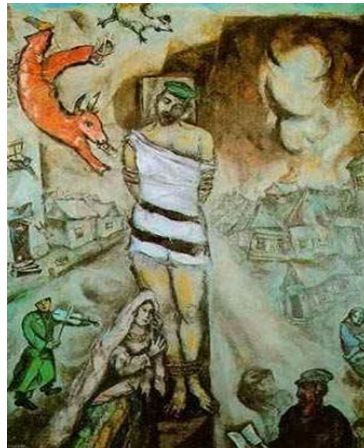
게 표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¹⁵²⁾.



<그림 36> 주제 - 종교
인간의 창조, 1956~1958
(샤갈, 모니카 봄-두첸, p.310)



<그림 37> 주제 - 종교
흰 십자가, 1938
(샤갈: 몽상의 은유,
다니엘 마르슈소, p.90)



<그림 38> 주제 - 종교
순교자, 1940
(회화의 이해: 지오토에서 샤갈까지, 리오넬로 벤투리, p.267)

152) 배남이(2002), 전개서, p.38

Ⅲ.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피카소와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마르크 샤갈의 작품은 초현실적인 공간 구성 및 다양한 색채에 의한 표현, 그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제 등의 환상적인 요소들로 표현 되어있다. 이러한 예술적 차원의 개성 있고 창조적인 특성을 가진 작품 제작이 아트메이크업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색채를 이용한 환상적 표현의 대표적 화가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형성 배경과 구성요소들을 고찰하여 각 구성요소에 맞는 그의 작품을 토대로 아트 메이크업에 접목하여 작품 제작을 하고자 한다. 특히, 마르크 샤갈 작품의 구성요소 중 색채와 주제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전체적인 이미지를 접목하되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샤갈의 대표적 색채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이 돋보이는 작품에서 각 1점씩 4점, 샤갈 작품 기저에 깔려 있는 주요 주제인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 꿈과 그리움, 사랑과 낭만, 그리고 환희와 슬픔에서 각 1점씩 4점을 아트메이크업으로 재해석한다.

작품제작 방법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한 메이크업 사진 뿐 아니라, 배경 및 작품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포토샵 기능까지 활용하여 완성도 있는 아트 작품으로서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표 1)

<표 1> 작품 디자인 계획

구분 분류	구성 요소	마크 샷 작품	일러스트	주조색	메이크업 재료
색채	Red			Red Purple Black	장미꽃잎 유성 물감 페인팅 브러시
	Yellow			Yellow Blue Orange Yellow green	조화, 나비, 종이 속눈썹
	Green			Green Blue Red Yellow	유성 물감 페인팅 브러시
	Blue			Blue Black Brown Red	패브릭, 수성 물감
주제	원초적 향수와 동경			Pink Red Blue Green	패브릭, 가발, 유성 물감
	꿈과 그리움			Black Yellow Purple Red	수성 물감, 꽃잎
	사랑과 낭만			Black White Grey	패브릭, 깃털
	환희와 슬픔			Blue Grey Pink	아이론, 깃털, 스톤

2. 작품 제작

1) 작품 I - 'Carmen'



(1) 작품 설명

작품 I은 마르크 샤갈 회화의 구성요소 중 색채를 활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레드'이다. 이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서커스에서'를 재해석 하였다. 샤갈의 작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인 서커스에 관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 작품에서는 레드의 강렬한 컬러를 베이스로 모든 시선이 무희에게 맞추어져 있다. 실제로 무희나 곡예사, 광대들이 서커스를 할 때처럼 화려한 현실을 살아가는 건 아니다. 샤갈은 이러한 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작품속 무희를 더욱 화려하게 그렸는지 모른다. 이러한 화려함 속의 고독을 표현하기 위해 '카르멘'을 떠올려 보았다. 무희의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 고독한 현실의 이중적 모습을 담고 있는 그녀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춤을 추고 있는 무희의 열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정열의 레드 컬러의 무희하면 떠오르는 카르멘의 디자인 스케치는 <표 2>와 같다.

(2) 제작 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피부 톤에 맞게 표현하였다.
- ② Purple 색상의 다양한 톤의 아이섀도우로 화려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 ③ Red 색상의 립으로 정열적인 카르멘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 ④ 정열하면 떠오르는 붉은 장미 꽃잎을 오브제로 한 쪽 눈 주위에 장식하여 아트 메이크업을 완성하였다.

<표 2> 작품 I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Carmen
회화 구성요소	색채 I - Red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인조 속눈썹, 립스틱, 장미 꽃잎
주조색	



<그림 39> 작품 I - 메이크업



<그림 40> 작품 I - Carmen

2) 작품 II - 'Fantastic Lover'

(1) 작품 설명

작품 II는 마르크 샤갈 회화의 구성요소 중 색채를 활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엘로우'이다. 이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한여름 밤의 꿈'을 재해석 하였다. 샤갈은 이 작품을 셰익스피어의 희극 '한여름 밤의 꿈'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 하였다. 한여름 밤의 꿈은 요정여왕이 마법에 걸려 당나귀 방직공과 사랑에 빠지는 상상의 일들이 펼쳐지는 이야기로, 이를 샤갈은 그림으로 재해석 하였다. 샤갈 자신을 당나귀 남자로, 여인을 그의 사랑하는 아내 벨라로, 몽환적이고 행복한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원작의 느낌을 살린 몽환적인 분위기의 요정과 흰 당나귀와의 애뜻한 사랑으로 제작하였는데, 요정은 엘로우를 주조색으로 오렌지, 블루 색상 등을 이용하여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당나귀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구성하여 원작의 신부의 순결한 웨딩드레스의 느낌을 연결시켜 순수한 당나귀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였다.(표 3)

(2) 제작 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피부 톤보다 한 톤 밝게 표현하였다.
- ② 발색을 높이기 위해 Yellow, Orange, Blue 색상 등의 유성 물감을 사용해 가볍게 터치 한 후, 같은 계열 아이새도우를 덧발라 색상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 ③ 주조색인 Yellow와 어울리도록 Orange 립 색상으로 따뜻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 ④ 꽃이 피어 있는 느낌으로 종이 오브제를 활용하여 속눈썹을 만든 뒤, 눈의 위·아래로 부착하였다.

⑤ 숲 속의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조화와 인조 나비 오브제를 이용하여 바디와 헤어에 장식하였다. 이 때 좀 더 회화적인 느낌을 내기 위하여 꽃에 아크릴 물감 White, Yellow, Green 색상 등으로 채색 하여 표현하였다.

<표 3> 작품 II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Fantastic Lover
회화 구성요소	색채 II - Yellow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유성물감, 아이세도우, 나비 종이 속눈썹, 조화
주조색	



<그림 41> 작품 II - 메이크업



<그림 42> 작품 II - Fantastic Lover

3) 작품 III - 'Palette'

(1) 작품 설명

작품 III은 마르크 샤갈 회화의 구성요소 중 색채를 활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그린'이다. 이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3시 반 또는 시인'을 재해석 하였는데, 이 작품 속 남자는 샤갈의 지인 중 시인으로 그의 초록색 머리는 뒤집혀 있다. 이 작품에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강한 대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색의 대비는 샤갈의 작품을 감상할 때, 더욱 강한 인상으로 남게 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작품 속 돋보이는 회화적 요소로는 입체주의가 있는데 이를, 종이를 찢어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 하였다. 팔레트 위에 뿌려진 색색의 다양하고 선명한 컬러들을 눈 주위에 표현하고 촬영한 사진을 콜라주 기법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입체주의 느낌을 살린 팔레트의 스케치는 <표 4>와 같다.

(2) 제작 방법

-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피부 톤과 같게 표현하여 내추럴 하면서 깔끔하게 표현하였다.
- ② Blue, Purple, Yellow, Red, Green 색상으로 마치 팔레트 위 짜 놓은 물감을 옮겨 놓은 듯한 느낌으로 보색의 대비감을 주어 눈 주위에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 ③ Red 색상을 이용하여 립 메이크업을 한 후, 양 옆으로 번지게 하여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 ④ 작품 촬영 후, 사진을 인화하여 찢어 콜라주 기법으로 재구성하였다.
- ⑤ 재구성한 작품을 포토샵의 합성 기법을 이용하여 원작과 합성하되, 원작의 배경과 촬영한 작품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하였다.

<표 4> 작품 III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Palette
회화 구성요소	색채 III - Green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유성물감,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립스틱, 메이크업 브러시
주조색	



<그림 43> 작품 Ⅲ - 메이크업



<그림 44> 작품 III - Palette

4) 작품 IV - 'Gloomy Bride'

(1) 작품 설명

작품 IV는 사갈 회화의 구성요소 중 색채를 활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블루'이다. 이 작품은 마르크 사갈의 '부채를 든 신부'를 재해석 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신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게, 블루 색상이 작품 전체에 깔려 있다. 또한 행복해야 할 신부는 눈을 감고 있어 더욱 우울하고 슬픈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작품이 주는 무겁고, 색상이 주는 침울한 분위기를 창백한 얼굴에 울고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재해석 하였다. 신부는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 원치 않는 결혼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로 인해 화장이 번져 얼굴로 흘러내리듯 표현하여 더욱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 하였다. 블루 색상이 주는 색상의 이미지를 베이스로 우울하고 슬픈 신부의 디자인 스케치는 <표 5>와 같다.

(2) 제작 방법

- ① 침울한 신부를 표현하기 위하여 White 색상에 가까운 밝은 소프트 파운데이션과 조금 더 창백한 느낌을 주기 위해 유성 물감 중 Blue 색상을 살짝 섞어 얼굴 전체에 고루 펴 발랐다.
- ② 원치 않는 결혼으로 인한 힘든 마음의 신부를 표현하기 위해 볼 아랫부분에 웨이딩 처리를 다소 진하게 하였다.
- ③ 눈썹은 더마 왁스를 이용하여 지우고, 눈썹을 그 위에 처지게 그려 우울한 느낌을 더했다.
- ④ Blue, Brown, Black 색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짙게 표현하여 합성할 배경의 질감과 연결되도록 표현하였다.
- ⑤ 수성물감 Black 색상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듯 표현하여 신부의 우울한 분

위기를 만들었다.

⑥ Red 색상의 립으로 마무리 하여 가벼운 혈색을 주었다.

⑦ 페브릭에 Blue, White, Purple, Black 색상의 아크릴 물감을 채색하듯 칠한 뒤, 주름을 잡아 신부의 목에 오브제로 장식하여 우아한 느낌도 함께 연출 하였다.

⑧ 포토샵에 합성 기법으로 원작을 합성하되, 원작의 신부가 제작한 작품과 함께 보이도록 구성하여 신부의 우울한 분위기를 고조 시켰다.

<표 5> 작품 IV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Gloomy Bride
회화 구성요소	색채 IV - Blue
재료	소프트 파운데이션, 유성물감, 아이세도우, 수성물감, 립스틱, 패브릭
주조색	



<그림 45> 작품 IV - 메이크업



<그림 46> 작품 IV - Gloomy Bride

5) 작품 V - 'In Paris'

(1) 작품 설명


작품 V는 마르크 샤갈 회화의 구성요소 중 주제를 활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이다. 이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창가에서 본 파리'를 재해석 하였는데, 러시아의 고향 마을 비테프스크를 떠나 파리로 간 샤갈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파리에 대한 동경을 두 얼굴을 통해 표현하였다. 샤갈만의 원색적인 다양한 색채 사용이 돋보이는 이 작품을 파리하면 떠오르는 오토쿠튀르적 컨셉으로 표현해 보았다. 모델을 꿈꾸고 있는 한 여성이 고향을 떠나 꿈 이상의 동경의 도시 파리로 가, 결국 오토쿠튀르 쇼에 서게 되는데, 쇼가 끝나면 몰려오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였다. 화려한 무대 위 파리만의 실험적이고 화려한 오토쿠튀르 스타일은 원색적인 다양한 색상과 실험적인 헤어 오브제로 표현하고, 과거를 추억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파스텔 톤의 그라데이션 기법과 웨이브 진 가발로 표현한 이 작품의 디자인 스케치는 <표 6>과 같다.

(2) 제작 방법

- ① 고향을 추억하는 모습을 밝은 톤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표현해주었다
- ② Blue, Purple, Yellow, Pink, Orange 색상으로 이마와 눈, 볼을 이어지듯 흐린 느낌으로 그라데이션하여 부드럽게 표현하고, 웨이브 진 Pink 색상의 가발을 씌워 몽글몽글한 회상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 ③ 파리를 동경하는 모습으로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한 톤 어둡게 표현해주었다.

- ④ 원작의 주조색인 Red, Yellow Green, Blue 색상 등을 주조색으로 강렬한 쿠튀르 아이 메이크업을 하였다.
- ⑤ 피부 전체에 Gold 색상으로 쉬머하게 표현하여 빛나는 오트쿠튀르 메이크업을 완성하였다.
- ⑥ 패턴이 들어간 레이스를 패턴별로 잘라 여러 개를 덧붙여 헤어 오브제를 완성하였다.
- ⑦ 포토샵의 합성 기법을 이용하여 원작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미지를 섞어 배경으로 연출하고, 동경의 이미지는 우측 하단을 중심으로 선명하게 배치하였다.

<표 6> 작품 V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In Paris
회화 구성요소	주제 I -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유성물감, 아이섀도우, 가발, 인조속눈썹, 레이스 패턴 패브릭
주조색	



<그림 47> 작품 V
- 메이크업 1



<그림 48> 작품 V
- 메이크업 2



<그림 49> 작품 V - In Paris

6) 작품 VI - 'The Bride's Future'

(1) 작품 설명

작품 VI는 마르크 샤갈 회화의 구성요소 중 주제를 활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꿈과 그리움'이다. 이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두 얼굴의 신부'를 재해석 하였는데, 그의 작품은 현재에 과거와 미래가 녹아 마치 동화 같은 환상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 역시 결혼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신부의 얼굴을 밤(과거)과 낮(미래)의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를 한 사람에게 표현하여 초현실적인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순결하고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 신부를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무언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느낌을 들게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을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재해석 해 보았으며, 한 얼굴에 두 얼굴의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한쪽은 신부의 과거의 아픔을 담은 밤의 느낌으로 옆모습의 얼굴을, 다른 한 쪽은 미래에 대한 설렘, 희망을 꽃잎을 떨어뜨려 밝게 표현하였다. 신부라면 겪을 수 있는 불안정한 마음을 표현한 이 작품의 디자인 스케치는 <표 7>과 같다.

(2) 제작 방법

- ① Black 수성 물감을 이용하여 모델의 얼굴 반쪽에 과거의 아픔을 담은 밤의 신부의 모습을 옆모습처럼 페인팅 하였다.
- ② Black 색상의 얼굴에 Yellow 색상을 이용하여 밤에만 나타나는 초승달 모양으로 홀을 잡아 아이 메이크업을 하였다.
- ③ 반대 쪽 얼굴에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환하고 깨끗한 피부를 표현해 주었다.
- ④ 따뜻한 느낌의 Red, Gold, Purple 색상으로 메이크업을 하여 미래의 희

망을 담은 얼굴을 표현하였다.

⑤ 순결하고 순수한 이미지의 신부를 White 색상의 화관, 베일, 의상으로 표현하고, 부케는 크게 만들어 밝고 따뜻한 Red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⑥ 꽃잎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촬영하여 포토샵 합성 기법을 이용해 희망적인 느낌으로 훔날리듯 표현하였다.

⑦ 또한, 포토샵으로 배경을 합성하고 희망의 이미지를 담은 배경 끝에서부터 빛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밝혀주었다.

<표 7> 작품 VI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The Bride's Future
회화 구성요소	주제 II - 꿈과 그리움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수성물감, 아이섀도우, 브러시, 조화, 화관, 장미꽃잎, 면사포
주조색	



<그림 50> 작품 VI - 메이크업



<그림 51> 작품 VI - The Bride's Future

7) 작품 VII - 'Bella'



(1) 작품 설명

작품 VII은 마르크 샤갈 회화의 구성요소 중 주제를 활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사랑과 낭만'이다. 이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를 재해석 하였다. 샤갈의 많은 작품들 속에 자주 등장하는 여인, 벨라는 그의 사랑스런 아내로 그의 회화 활동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작품 역시 그의 연인이며 아내인 벨라의 초상화로 상당히 절제된 색채의 사용과 다소 장식적인 요소가 특징이다. 샤갈의 여성미 표현에 있어 최초의 기념할 만한 서정성 짙은 작품 속 벨라를 현대판 벨라로 재해석 해 보았다. 하얀 피부에 귀부인을 연상케 하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로 재해석된 블랙 & 화이트 색상을 기본으로 한 현대판 벨라의 디자인 스케치는 <표 8>과 같다.

(2) 제작 방법

- ① White 색상에 가까운 밝은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얇게 여러 번 두드려 밀착력 있고 희고 깨끗한 피부를 표현해 주었다.
- ② Black 색상을 이용하여 아이홀을 잡고 Black, Brown, Dark grey 색상을 이용하여 깊이 있는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눈에 깊이감을 주었다.
- ③ Purple 색상으로 깔끔하게 립 메이크업을 하여 우아하고 기품 있지만 그 속에 아우라가 있는 강렬함을 함께 표현하고자 했다.
- ④ White 패브릭과 깃털을 이용하여 헤어 오브제와 의상을 만들었고, 원작 느낌을 살리기 위해 Black 레이스 장갑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표 8> 작품 VII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Bella
회화 구성요소	주제 III - 사랑과 낭만
재료	소프트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인조 속눈썹, 마스크라, 립스틱, 브러쉬, 깃털, 패브릭
색채	



<그림 52> 작품 VII - 메이크업



<그림 53> 작품 VII - Bella

8) 작품 VIII - 'Warrior'

(1) 작품 설명

작품 VIII은 마르크 샤갈 회화의 구성요소 중 주제를 활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환희와 슬픔'이다. 이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제한 없는 시간'을 재해석하였다. 이 작품은 세계 2차 대전에 그려진 작품으로 사랑하는 그의 연인 벨라의 죽음, 그의 추억 고향 비테프스크, 그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전쟁 속에 정처 없이 계속 날아가야만 하는 기묘한 물상(물고기와 새의 조합)이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데, 전쟁과 기묘한 물상의 요소를 접목하여 어떤 전쟁에서도 지지 않는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는 전사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다. 깃털을 활용하여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물고기 비늘 모양을 덧붙여 투구를 만들어 하나의 여전사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강인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여전사의 디자인 스케치는 <표 9>와 같다.

(2) 제작 방법

- ① 전쟁 속에 있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여전사의 이미지를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하여 연출하기 위해, 피부는 깨끗하게 표현하여 아이 메이크업이 돋보이도록 하였다.
- ② Blue, Grey, White 색상의 아이섀도우로 눈 전체에 바른 후, 속눈썹, 아이라인으로 눈을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 ③ Red 색상을 이용하여 가벼운 혈색 느낌의 립 메이크업을 하였다.
- ④ 치크는 Pink 색상으로 다소 진하고 선적인 느낌의 살려 표현하였다.
- ⑤ 깃털과 스톤을 활용한 오브제를 만들어 아이홀에 부착시켰다.
- ⑦ 얇은 철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자른 후, 덧붙여서 투구 느낌의 헤어 오브제를 연출하였다.

<표 9> 작품 VIII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주제	Warrior
회화 구성요소	주제 IV - 환희와 슬픔
재료	소프트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컬러 스톤, 깃털, 인조 속눈썹, 립스틱, 브러쉬, 철, 부직포
색채	



<그림 54> 작품 VIII - 메이크업



<그림 55> 작품 VIII - Warrior

IV. 결론

마르크 샤갈은 20세기 최고의 미술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에는 고향 비테프스크의 추억, 사랑과 낭만, 꿈과 그리움 등이 다양한 색채로 그의 경험과 상상 속에서의 인물과 상징으로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환상적인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예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술 분야 중의 하나인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미술 작품의 다양한 요소들에서 모티브를 얻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 내고 있다. 특히, 메이크업 분야 중 아트메이크업 영역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이 많이 응용되어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르크 샤갈의 작품의 형성 배경을 그의 생애와 그 시대 미술사를 통해 알아보고, 샤갈의 작품들을 분석하여 이를 모티브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샤갈 작품의 구성요소를 구도와 공간, 색채,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구도와 공간에 따른 분석으로는 사물과 인물들이 중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 상징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였고, 색채에 따른 분석으로는 그의 상상력과 보색 색채가 융합하여 밝은 톤의 색으로 강조되었다. 주제에 따른 분석은 샤갈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향수, 사랑과 낭만, 종교로 나누어 샤갈의 환상적인 작품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그의 작품을 구성 요소인 주제와 색채로 나누어 작품을 이해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색채 응용 및 배색을 표현하고 조형적 요소를 위한 오브제 등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I의 'Carmen'은 샤갈 회화 구성요소 중 색채를 응용한 작품으로, 레드 색상의 강렬함을 카르멘이란 집시를 통해 원작의 느낌을 재해석하였

다. 레드 컬러의 장미를 한 잎씩 뜯어 눈 주위에 부착함으로써 카르멘의 열정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아트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I의 'Fantastic Lover'는 야갈 회화 구성요소 색채 중 옐로우 색상을 응용한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극 '한 여름 밤의 꿈'을 각색하였다. 옐로우를 주조색으로 오렌지, 블루, 그린 등 다채로운 색상들이 요정의 신비로움과 따뜻함을 표현하게 했다. 또한 당나귀를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으로 연출하여 순결하고 깨끗한 둘의 사랑임을 나타내었다.

작품 III의 'Palette'는 야갈 회화 구성요소 색채 중 그린 색상을 응용한 작품으로, 입체주의 면모가 두드러진 원작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린 색상을 주조색으로 블루, 퍼플, 레드 색상들의 원색적인 컬러의 조합으로 마치 팔레트 위 물감들이 짜서 놓여있는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V의 'Gloomy Bride'는 야갈 회화 구성요소 색채 중 블루 색상을 응용한 작품으로, 블루가 주는 색감의 이미지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채도가 낮은 블루 색상의 우울함, 울고 있는 신부를 표현하기 위해 피부부를 창백하게 하고, 눈썹을 처지게 그리며, 수성 물감을 이용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연출 하였다.

작품 V의 'In Paris'는 야갈 회화 구성요소 중 주제를 응용한 작품으로,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 모델의 꿈을 안고 건너온 파리에서 오트쿠튀르 쇼 위의 화려함과 무대가 끝나면 다시 찾아오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였다. 오트쿠튀르 위의 화려하고 실험적인 요소를 위해 채도가 높은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색상으로 컬러풀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레이스 패턴을 덧붙여 헤어 오브제를 완성하였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는 모습은 연한 파스텔 톤의 컬러들을 부드럽게 그라데이션하고 몽글몽글 추억이 떠오르게 하는 핑크색 가발을 씌워 표현하였

다.

작품 VI의 'The Bride's Future'는 샤갈 회화 구성요소인 주제 중 꿈과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다. 신부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 얼굴에 두 얼굴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과거를 상징하는 밤의 느낌을 블랙 색상의 수성물감을 이용하여 페인팅 하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빛이 들어오며 꽃잎이 흩날리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VII의 'Bella'는 샤갈 회화 구성요소인 주제 중 사랑과 낭만을 주제로 하고 있다. 원작은 샤갈의 연인 벨라의 초상화로, 블랙과 화이트 색상을 주조색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절제한 현대판 벨라로 재해석 하였다. 원작의 다소 장식적인 요소를 화려한 헤어 오브제를 제작하여 원작과의 연결감을 주려 하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아한 카리스마적 벨라로 표현하였다.

작품 VIII의 'Warrior'는 샤갈 회화 구성요소인 주제 중 환희와 슬픔을 주제로 하고 있다. 전쟁 속 정처 없이 계속 날아가야만 하는 슬픔을 가진 기묘한 물상(물고기와 새의 조합)의 앙상블을 전쟁과 접목하였으며, 이를 깃털과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철을 잘라 덧붙여 만든 투구를 쓴 평화를 사랑하는 전사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품 제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르크 샤갈의 회화 구성요소 중 색채와 주제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그의 작품의 다양한 색채 배색을 응용한 그라데이션 기법과 포토샵을 통한 배경의 합성으로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작품에 화가의 회화 구성요소를 접목시킨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작품제작에 있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본 연구를 통해 이후에도 아트 메이크업이 예술적 ·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샤갈의 작품 뿐 아니라 다양한 현대예술가들의 작품을 응용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제작이 끊임없이 시도되어 지속적으로 연구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희명(2004), “20세기 전반기 추상회화를 모티브로 한 니트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오욱(1994), “마르크 샤갈 회화의 시적 이미지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준범(1998), “20세기 현대 미술사 흐름 파악 -각각의 미술운동을 중심으로-”, 사향미술교육논총, 6(1), pp.243~256
- 김민지(1995),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민(2012), “마르크 샤갈의 회화적 모티브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디자인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1995), 칸딘스키: 그림자 없는 남성적 영혼의 귀족주의, 서울: 재원
- 김애경(2009), “칼 융의 분석심리학으로 본 마르크 샤갈의 작품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영(2003), “C. G. Jung의 상징이론 -샤갈 작품 속의 자기(self) 상징적 이미지와 연관하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2012), “마르크 샤갈의 회화세계에 대한 연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근(2004), 샤갈 ‘내 영혼의 빛깔의 시’, 서울: 평단아트
- 나은화(2014), “마르크 샤갈의 작품<이삭번제>에 담긴 의미: 예수 상징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희선(2004),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홍익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닐 콕스, 천수원 역(2002), 입체주의, 서울: 한길아트

다니엘 마르슈소, 김양이 역(1995), 샤갈: 몽상의 은유, 서울: 시공사

도지숙(2005),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회화세계에 대한 연구: 환상적 표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리 엘렌 당페라 외 2명, 이재형 역(2001), 샤갈: 창해

마르세 파케, 김영선 역(2008), 르네 마그리트: 1898~1967: 가시화된 사유, 서울: 마로니에북스

마르크 샤갈, 최영숙 역(2004), (내 젊음의 자서전)샤갈, 꿈꾸는 화가의 마을, 서울: 다빈치

모니카 봄-두첸, 남경태 역(1998), 샤갈, 파주: 한길아트

로런스 고윙, 이영주 역(2012), 마티스: 아름다운 색의 마술사, 서울: 시공사

로즈메리 램버트, 이석우 역(1993), 20세기 미술사, 서울: 열화당

리오넬로 벤투리, 정진국 역(1999), 회화의 이해: 지오토에서 샤갈까지, 서울: 눈빛

박갑영(2001),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서울: 두리미디어

박선희(2007), “20세기 초 회화작품의 컬러이미지 분석에 따른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지은(2015),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마스크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남이(2002), “감상을 통한 상상화 발상지도 연구 -샤갈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라 휘트필드, 이대일 역(1988), 야수파, 서울: 열화당

샤갈, 에른스트, 미로(1973), 현대미술전집 9, 서울: 금성출판사

세계미술전집 35(1977), 샤갈, 東京: 小學館

- 손희낙(2001), “기하학적 추상회화와 색채에 대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선(2012), “북 아트와 미술사 연계 지도방안 연구 -미술교과 내의 20세기 전반 미술 사조 중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1992), 초현실주의: 예술 각 분야에 나타난 모험 정신과 그 한국적 수용, 서울: 동아출판사
- 오광수(1987),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일지사
- 오윤주(2004), “사갈의 회화세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구성요소적 특징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정(2002), “패션 트렌드의 다중화·복잡화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현(2006), “입체주의 양식을 활용한 자화상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2000),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회화에 나타난 조형언어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슬(2010), “고등학생의 표현력 향상을 위한 감상학습법 연구 -마르크 샤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1995), “오브제(Object) 표현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마르크 샤갈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현(1998), 미술로 보는 20세기. 서울: 학고재
- 이주희(2013), “로웬펠드의 자아동일화 개념과 미술사조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 연구 -독일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13),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20세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외 3명(2005), *The Make-up*, 서울: 예림
- 자클린 루메, 베로니크 브와리, 김미선 역(2000), *샤갈: 내 슬프고도 즐거운 마을*, 서울: 성우
- 정미희(1992), *독일 표현주의 미술*, 서울: 일지사
- 정숙자(1991), “20세기 미술의 동향과 마르크 샤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논문집*, 12, pp.159~176
- 정은지(2011), “구스타프 클림트 회화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순자(2012), “마르크 샤갈의 작품에 나타난 빛의 도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미(2011),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네일아트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20세기 미술사 표현을 중심으로)”,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예윤(2006),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작품에 나타난 상상력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크리스티아네 바이데만, 엄미정 역(2009), *살바도르 달리*, 서울: 예경
- 프란체스코 갈루치, 김소라 역(2007), *피카소: 무한한 창조의 샘*, 서울: 마로니에북스
- 하요 뒤흐팅, 김은지 역(2010), *파울 클레*, 서울: 예경
- 하종현(2005), *마티스와 불멸의 색채화가들*, 서울: 시립미술관
- 황성혜(2003), “환상 표현의 시각화 전통 설화를 통한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태희(2006), *3일 만에 읽는 서양미술사*, 서울: 서울문화사
- Damperat, Marie-Hélène, Sylvie Forestier, and Éric de Chassey, 이재형 역(2000), *샤갈, 창해 ABC북 2*, 서울: 창해
- H .W. Janson, 김윤수 외 역(1978), *미술의 역사*, 서울: 삼성출판사

H. W. Janson and Anthony I. Janson, 최기득 역(2008), 서양미술사, 서울:
미진사

국외 문헌

Chareles Sorlier(1882), Chagall by Chagall, New York: Harrison House
Charlotte Lichtblau(1988), Chagall and The Bible, Religion and Intellectual
Life 5

Erich Neumann(1595), Art and Creative unconsciou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Bolingen Series LXI

Ingo F Walther and Rainer Metzger(2000), Marc Chagall, Koin:
TASCHEN GmbH

Marc Chagall(1931), Ma Vie, Paris: Librairie Stock

Marc Chagall(1979), Marc Chagall de Draeger, Paris: Editions Draeger

Marc Chagall(1947), The Artist, The Work of th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Michel Makarius(1993), CHAGALL, London: Studio Editions Ltd.

Reinhold Heller ed.(1991), Vom Expressionismus zum Widerstand: Kunst
in Deutschland 1909-1936, München: Prestel-Verlag

Roy McMullen(1968), The World of Marc Chagall, New York: Pay &
wine

인터넷 자료

구글, 여곡마사, http://mural.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484&cate_no=249&display_group=1, (검색일자, 2015.6.29.)

구글, 창문, <http://classroom.re.kr/uploadfile/content/content10/second02/>

data06/sub28/, (검색일자, 2015.6.29.)

네이버, 기억의 지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841&ci=46720&categoryId=46854>, (검색일자, 2015.4.13.)

네이버, 마르크 샤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0683&mobile&cid=40942&categoryId=34392>, (검색일자, 2015.4.20.)

네이버, 마르크 샤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0683&mobile&cid=40942&categoryId=34392>, (검색일자, 2015.5.19.)

네이버, 마르크 샤갈, <http://blog.naver.com/visaber/220405960680>, (검색일자, 2015.7.1)

네이버, 에른스트 도시의 풍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65329>, (검색일자, 2015.6.9.)

네이버, 에펠탑과 오르피즘,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0&contents_id=7694, (검색일자, 2015.4.15.)

네이버, 입체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372&cid=47310&categoryId=47310>, (검색일자, 2015.4.19.)

네이버, 입체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789&cid=46720&categoryId=46871>, (검색일자, 2015.6.6.)

다음, 초록 눈의 집,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ESbw&articleno=11358911, (검색일자, 2015.6.29.)

ABSTRACT

Art Makeup Works Utilizing Elements from the Paintings of Marc Chagall

Lee, So Hyun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Make-up · 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oday's society is becoming entangled in an age of great change and diversity tied to respect for individual personaliti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possibility for unlimited free expression which does not conform to established form and traditions, and the rise in the esthetic standard of modern society stressing the personality of each individual, is reflected in makeup as well, and this has given rise to a new genre of creativity in art makeup.

Art makeup, a form of artistry that pursues creative sensitivity, displays its beauty through various forms of creative work executed on people's faces or other parts of the body, could be described as a branch of the spacial arts, and is a form that uses free and individualistic expression, combining materials from a variety of areas, and

incorporating elements drawn from fine art, architecture, fashion and other fields.

Marc Chagall, an artist who lived during 20th century, a time marked by rapid change, even today is still considered a painter of great influence, together with Picasso, and the unlimited imagination of his works has served as the inspiration for many exhibitions and works of art. Chagall's works do not fall into any one particular style among the diverse styles of the 20th century, but make up his own individual world of creations, artworks utilizing his unique interpretation of color, which earned him the title 'The Magician of Color', and his treatment of universal subjects in everyday situations, reborn through his fantasy compositions, has maintained his reputation right up until today. His own world of emotion that he created by combining elements in his diverse imagery remains an object of respect to many, and when we take note of his ability to evoke sympathy, we realize without a doubt that the body of his work provides a substantial clue into the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art. In addition, mutually grafting to these artists from a former age, brings meaning to those living in the present age, by raising the value of the spacial ar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how the diverse methods of creative expression in art makeup, show how the colors and subjects that are essential elements used by the Magician of Color, Marc Chagall, in his signature imagery, can be transplanted into art makeup, and to show how, as works of art, these kinds of images can be developed as a resource for artistic expression.

The research method us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began by establishing a theoretical background through the examin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books, previously published dissertations and internet searches and analyzed the use of color and subjects as elements of the works and pictorial expression of Marc Chagall (1887-1995) and then creating art makeup works by utilizing these elements as artistic resources of creative expression.

Works I - IV used the element of color from among Chagall's pictorial expression, creating one work using each of four of his most representative colors, red, yellow, green and blue.

Work I, employs the color red and recreates a motive from Chagall's "At the Circus," the figure of a dancer, with a focus on strong vivid color, while Work II draws a motive from Shakespeare's "A Midsummer Nights Dream," combined with the yellow of Chagall's work and was created with the love between the fairy and donkey as the background. Work III examines "The Poet, or Half-past Three" using many clear colors with a focus on the color green, and in order to employ a cubist expression was executed on the base of a collage of photographs, while Work IV, following the feeling of "Bride with a Fan," creates an atmosphere of sorrow with the color blue.

Moving on to works V - VIII, four subjects from Chagall's works, "Scent and Longing for the Origin of Man," "Dream and Longing," "Love and Romance," and "Joy and Sorrow" were chosen as themes, and one work was made for each of these themes.

Work V, portrays Chagall's love for Paris as portrayed in "Paris

Through the Window,” which he painted soon after moving to Paris from his native Russia, combined with his longing for Russia, portrayed in two faces freely melting into each other. Work VI, through the two faces of the bride in “Bride with Two Faces” portrays the painful heart of the bride before the wedding and the hope for a good life after the wedding. Work VII draws from “My Fiance with Black Gloves,” a work portraying Chagall’s lover, Bella, who exerted great influence on his work. Like the original painting, it is executed primarily in black and white, recreating the portrayal of the elegant and charismatic Bella. The final in the series, Work VIII, takes a motive from “Time has No Limit,” a painting in surrealist style, recreating the figure of an angel, pleading for peace from within the sorrow of World War II.

This research, by combining art makeup with artistic works by basing art makeup designs on elements from the work of Marc Chagall,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some of his works of art a little more easily and also made it possible to create original new works utilizing some of the unlimited subject matter and design elements that are available for art makeup.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continue to add artistic and scholarly value in the future regarding ongoing work to produce creative original art makeup works making use not only of the works of Chagall, but also the work of a variety of contemporary artists.